The first book of Adam and Eve

아담과 하와 1권 (부제:아담과 하와의 사탄과의 쟁투)

들어가기 전

이 책은 많은 학자들이 "Pseudepigrapha(위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Pseudepigrapha(위경)"는 픽션(허구)으로 간주되는 역사적 성서 작품의 모음입니다. 그 낙인 때문에 이 책은 성경 편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된 역사입니다. 일부에서는 허구로 간주되지만 당시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들에 본질 내용이 없었다면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버전은 알려지지 않은 이집트인의 작품입니다(역사적 암시가 없기 때문에 기록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버전의 일부는 탈무드, 코란,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며, 인간 지혜에 관한 원본 문헌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집트 작가는 처음에 아랍어로 글을 썼고(이는 원본 원고로 간주될 수 있음)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재 영어 번역을 위해 우리는 뮌헨 대학교 교수인 E. Trumpp 박사가 편집한 Ethiopic 판에서 작업한 Broadwindsor의 교구장인 Dr. S. C. Malan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Trumpp 박사는 아랍어 원본에 대해서 기여했으며, 이는 수세기의 간극을 가르는 우리의 다리를 단번에 연결해줍니다.

한 비평가는 이 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학적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미래 세대의 판단을 형성하는 데 현대 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보물은 학문의 세계에서 이 문학적 보물보다 이집트학자에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영어 번역은 1800년대 후반 Dr. S. C. Malan과 Dr. E. Trumpp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랍어 버전과 에티오피아 버전 모두에서 King James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그 후 The World Publishing Company에서 1927년 The Forgotten Books of Eden에 출판되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은 짙은 색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큰 닷새반 = 5.5일 = 5500년

1장

크리스탈 바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보물의 굴(Cave of Treasures)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삼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땅의 동편에 에덴동산을 경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동쪽 경계에, 그 너머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물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전체 세상을 감싸며, 그리고 하늘나라의 경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2 그리고 동산의 북쪽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맛의 얇고 납작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통해서 지구의 속살을 들여다 볼 지도 모릅니다.

3 사람이 그 가운데서 몸을 씻으면 비록 그가 검다 할지라도 형용할 수 없이 깨끗해지고 형용할 수 없이 희어진다.

4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그 바다를 창조하셨으니 이는 그가 지으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음이라. 이는 사람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동산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에서 의인이 죽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을 일으키시리라. 그들이 육체로 돌아가야 할 때 그 바다 물에서 몸을 씻고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리라.

5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를 북방 경계에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바다에 가까이하여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몸을 씻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을 잊어버리고, 저들의 생각 안에서 더 이상 범법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또 동산 남쪽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아담이 거기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 그 남쪽으로 동산 나무의 달콤한 냄새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그런즉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나무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하심은 그가 그 범죄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가 행한 일을 인하여 위로를 얻으며 나무의 향기를 기뻐하며 그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지극히 긍휼히 여기사 오직 자기만이 아신 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나니 동산 서쪽 경계에 우리 조상 아담을 두셨으니 그 쪽 땅은 땅이 심히 넓음이라.

9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 바위 속 동굴, 곧 동산 아래 보물의 동굴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장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떠나자마자 기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나갔을 때 자기들이 밟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2 그들이 동산 문을 여는 데 이르러 그들 앞에 펼쳐진 넓은 땅과 크고 작은 돌과 모래로 덮인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엎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3 그들이 지금까지는 온갖 종류의 나무가 아름답게 심겨진 동산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낯선 땅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동산에 있을 때는 그들이 광명한 성품의 은혜로 충만하였고 땅의 일에 마음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동산 문 앞에 쓰러진 것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쓰러진 상태에서 일으키셨습니다.

3장

큰 닷새 반 동안의 약속에 관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내가 이 땅에서 날과 해를 정하였나니 날과 해가 차기까지 너와 네 자손이 거기 거하며 다니리라. 내가 너를 창조한 말씀을 보낼 때, 너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은 너를 동산에서 나오게 하였으며 너가 쓰러졌을 때에 너를 일으켰느니라.

2 "참으로 그 말씀이 큰 닷새 반(5.5일)이 성취되면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라"

3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닷새 반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4 아담은 자기가 세상 끝날까지 닷새 반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5 그리고 아담은 울며 하나님께 그에게 설명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6 그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된 아담을 위하여 인자하심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5000년과 500년이라. 그리고 한 사람이 오셔서 너와 너의 후손을 구원할 것이라”

7 그러나 곧 동산에서 나오시기 전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던 그 나무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에도 우리 조상 아담과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8 우리 조상 아담이 동산에서 나올 때에 그 나무 곁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무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신 것과 마른 것을 보았으므로

9 그리고 아담이 거기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떨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와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0 또 아담이 동산 문 곁에 있을 때에 번쩍이는 불 칼을 손에 든 그룹을 보았는데 그 그룹이 노하여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눈살을 찌푸리매 아담과 하와가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그들을 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두려워 떨었습니다.

11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담과 하와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말하되:--

12 "주님, 당신께서 나를 보내어 불의 칼로 동산 문을 지켜보게 하셨나이다.

13 "주의 종 아담과 하와가 나를 보고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사오니 내 주여 우리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리이까?"

14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천사를 보내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15 주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16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닷새 반 후에 나의 말씀을 보내어 너를 구원하리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네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전에 네게 말한 보물의 동굴에 거하라"

18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를 구원할 것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아담은 변화된 처지를 한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물의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거처인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2 참으로, 아담이 변질된 그의 육체를 보고 그와 하와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걸어서 보물의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3 그들이 거기에 이르매 아담이 자신에 대해서 울면서 하와에게 이르되 “이 동굴을 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옥이요. 형벌을 받을 이 동굴이로다”

4 "동산에 비하면 무엇이요? 이 좁은 동굴은 동산 저편에 비하면 무엇이냐?

5 "저 작은 숲 옆에 있는 이 바위는 무엇이냐? 동산의 빛에 비하면 이 동굴의 어둠은 무엇이냐?

6 "우리를 덮으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비하면 우리를 보호하는 이 돌출된 바위가 무엇이냐?

7 "이 동굴의 흙은 동산에 비하면 어떠하느냐? 이 땅에는 돌이 깔려 있고 맛있는 과일나무가 심겨 자라겠느냐?"

8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너와 나의 눈을 보라 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또한 쉬지 않고 찬양하였느니라.

9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같이 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육신이 되어 전에 본 것과 같이 보지 못하노라”

10 아담이 다시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전에 동산에 거하던 것과 비교하여 오늘날 우리의 몸이 어떠하냐?”

11 그 후 아담은 돌출된 바위 아래 동굴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죄인이 되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5장

하와가 고귀하고 감동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동굴에 들어가 서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잘 아는 그들의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2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아담이 눈을 들어 바위와 자기를 덮고 있는 동굴 지붕을 보니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물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며 그의 가슴을 심하게 쳐서 쓰러져 죽은 듯이 되었습니다.

3 하와는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 그때 하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의 죄 곧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5 "저 혼자서 주의 종을 동산에서 이 황폐한 곳으로, 빛에서 이 어둠으로, 기쁨의 거처에서 이 감옥으로 떨어지게 하였사오니,

6 "하나님이여, 이같이 넘어진 주의 종을 보사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면 그가 나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울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7 “이번만은 그 영혼을 빼앗지 마옵시고 오직 그로 살아서 그의 회개의 분량이 다한 후에 서게 하시고 죽기 전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8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을 거두어 저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 혼자 두지 마옵소서. 저는 이 세상에 홀로 설 수 없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설 수 있습니다.

9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신성한 능력으로 그를 잠자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뼈를 취하시고 그 자리에 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0 “또 주께서 나를 뼈로 취하사 그와 같이 마음과 이성과 말이 그와 같이 밝고, 육신으로 그와

같은 여자를 만드셨고 당신의 자비와 능력으로 그의 용모의 모양을 따라 나를 만드셨습니다.

11 "오 주여, 나와 그는 하나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라. 주는 우리 둘을 하루에 지으신 이시니이다.

12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그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 그가 이 낯선 땅에서 나와 함께 있게하옵소서.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살리지 아니하시거든 저도 데려가시고, 저도 그와 같게하옵소서. 우리 둘 다 같은 날에 죽게 하옵소서”

14 그리고 하와가 몹시 울며 큰 슬픔 가운데 우리 조상 아담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6장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죄를 지었는지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큰 슬픔으로 스스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일으켜 위로하실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야 하고 즉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4 그리고 주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희를 두었던 동산에서 나올 때까지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였느니라.

5 "너는 신격과 위대함과 나 같은 고귀한 상태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서 그 때의 밝은 성품을 빼앗고 동산에서 나오게 하고 거칠고 풍파로 가득한 이 땅으로 이끌어 내었으니라.

6 “너희가 내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법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였더면… 동산에는 그보다 더 나은 실과가 있었도다.

7 “그러나 악한 사탄은 그 처음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그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안에 나를 향하여 선의를 품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지었으나 나를 멸시하였으며, 그리고 신격을 구하였

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하늘에서 내던졌으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므로 그것을 먹을 때까지 너희들 눈에 그 나무가 유쾌하게 보이도록 만든 자가 바로 그 자이다.

8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었고, 그리하여 내가 이 모든 슬픔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9 “나는 창조주 하나님임이라. 내가 내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내 분노를 심히 격동시킨 후에 내가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되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하였노라.

10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의 범죄로 완고해지면, 그들은 영원히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7장

짐승들은 화해되어졌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울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심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2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내 언약을 맺었은즉 나는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큰 닷새 반의 언약이 이루어 지기까지 나는 너를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리라"

3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사 동산에 거하게 하셨사오며 내가 범죄하기 전에 주께서 모든 짐승을 내게 오게 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르게 하셨나이다.

4 “그 때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뜻대로 각 동물의 이름을 지었사오며 주께서 그들을 다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5 “그러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의 계명을 범하였사오니 모든 짐승이 일어나 나를 치며 나와 당신의 여종 하와를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면에서 끊을 것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동산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낯선 땅에 있게 하셨사오니 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7 주께서 아담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들짐승이 일어나 그와 하와를 삼킬 것이라고 그가 진실로 말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8 그때 하나님이 짐승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명하사 아담에게로 나아와 그와 친하게 지내고 그와 하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 선하고 의로운 자도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9 이에 짐승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담에게 절하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뱀(Serpent)만 그리 아니 하였습니다. 뱀은 동물들과 함께 아담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사람의 "밝은 본성"이 제거되다.

그때 아담이 울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동산에 거할 때에 마음이 고양되었고 하늘에서 찬송하는 천사들을 보았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전에 보던 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서 숨겨졌습니다"

2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복종할 때에 네 속에 밝은 본성을 가졌고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느니라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네 성품이 떠나갔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은 떠났고 이제는 육체의 능력을 따라 오직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볼 뿐이라. 이는 짐승과 같은 것이라"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슬픈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갈 길을 갔습니다.

4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그치셨습니다.

9장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나온 물. 익사 직전의 아담과 하와.

그때 아담과 하와가 보물의 동굴에서 나와 동산 문에 가까이 이르러 거기 서서 바라보며 동산에서 나온 일로 울었습니다

2 아담과 하와가 동산 문 앞에서 나아가 그 동산 남쪽으로 가니 생명나무 뿌리에서 나와 동산에 물을 주는 물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갈라져 네 개의 강으로 땅 위를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3 그들이 와서 그 물에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뿌리 아래에서 솟아난 물임을 보았습니다.

4 아담이 동산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며 그의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5 "어찌하여 당신이 나와 당신과 우리 자손에게 이토록 많은 재앙과 형벌을 내리게 하였느냐?"

6 그리고 하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고 울며 내게 이렇게 말하느냐?”

7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시되 “동산에 우리와 함께 있던 이 물이 동산 나무들에게 물을 주어 거기서 흘러나온 이 물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8 "그리고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낯선 땅에 왔으므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 사용하기를 원하도다"

9 그러나 하와는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의 고통으로 그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와서 창조물을 보지 않기 위해 그 안에서 스스로를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의 작품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끝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0장

그들의 몸은 동산을 떠난 후에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속에 누워 죽음에 가까운 그들을 보시고 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물에서 건져내어 죽은 자 같이 해변에 두셨습니다.

2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접을 받으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주의 피조물이 숨을 거두었나이다”

3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4 아담이 살아난 후에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에는 이 물을 요구하거나 돌보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5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명령 아래에 있고 광명한 천사였을 때에는 이 물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6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어긴 후에는 물로 네 몸을 씻고 자라게 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지금 짐승의 몸과 같아서 물을 원함이니라”

7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으며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그가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보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8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약속하였노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네 의로운 자손과 함께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9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를 그치셨습니다.

11장

동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회상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갈증과 더위와 슬픔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어도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와야 이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와 후손의 형벌이 더하리라"

3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그 물에서 물러나 그것을 조금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나 보물의 동굴로 돌아와 들어갔습니다.

4 그러나 그 안에서 아담은 하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녀도 아담을 볼 수 없었고 아담이 내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5 아담이 깊은 고통 중에 울며 그의 가슴을 치니 그가 일어나서 하와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6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나는 이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7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동산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밝은 본성을 기억하여라!

8 "오 하와야, 동산에서 우리 위에 머물렀던 영광을 기억하여라. 오 하와야, 동산에서 우리가 그들 사이를 이동할 때 우리를 덮었던 나무를 기억하여라.

9 "오 하와야, 우리가 동산에 있을 동안에는 밤도 낮도 알지 못함을 기억하여라. 아래에서 물이 흐르고 우리 위에 빛을 발하는 생명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오 하와야, 동산과 그 광채를 기억하여라!

10 "오, 우리가 거기에 거할 동안 어둠이 없었던 그 동산을 생각해 보거라.

11 "우리가 이 보물의 동굴에 들어오자마자 어둠이 우리를 둘러쌌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생의 모든 즐거움이 끝났구나"

12장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이 그의 가슴을 쳤고 아담과 하와 그들은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밤새도록 슬퍼했으며 Miyazia에서 밤새도록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2 아담이 쓰라린 슬픔과 흑암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때리며 동굴 속에 있는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3 그러나 하와는 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손으로 그를 만지며 시체가 된 것 같은 그를 찾았습니다.

4 이에 그녀는 두려워 말문이 막힌 채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5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아담의 죽음과 어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하와의 침묵을 돌보셨습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의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고 하와가 말할 수 있게 하와의 입을 여셨습니다.

7 아담이 동굴에서 일어나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빛이 우리에게서 떠났고 흑암이 우리 위에 임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긴 흑암에 버려두시나이까? 어찌 우리를 이같이 괴롭게 하시나이까?

8 “오 주님 이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어디에서 왔나이까?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나이다.

9 “우리가 동산에 있을 동안에는 어둠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나이다. 내가 하와에게 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녀가 내게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서로가 분리되었나이다.

10 “그러나 그녀와 나는 둘 다 한 밝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동굴에 들어온 이후로 어둠이 우리를 덮쳐 우리를 갈라놓았고, 내가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녀도 나를 보지 못하나이다.

11 "오 주님 주께서 이 흑암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겠나이까?"

13장

아담의 타락. 밤과 낮이 창조된 이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담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2 "아담아, 선한 천사가 나에게 순종하는 한, 밝은 빛이 그와 그의 군대 위에 머물렀다.

3 “그러나 그가 내 계명을 어겼을 때, 나는 그에게 밝은 본성을 빼앗았고, 그는 어두워졌다.

4 "또 그가 하늘, 빛의 영역에 있을 때, 그는 어둠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5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으매 내가 그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였더니 이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6 “그리고 오 너 아담아, 내 동산에서 나에게 순종하는 동안 그 밝은 빛이 너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나 내가 네 범죄를 듣고 그 밝은 빛을 빼앗았노라. 그러나 나의 자비로 말미암아 너가 흑암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살로 된 몸으로 되게 하고 그 위에 이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피부를

덮었노라.

8 "만약에 내 진노가 무섭게 임했다면 나는 너를 파괴하고 어둠으로 변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너를 죽이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9 “그러나 나의 자비로 내가 너를 있게 하였느니라. 아담아 네가 내 명령을 범할 때에 내가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 땅으로 나오게 하고 이 굴에 거하라고 명하였느니라. 내 명령을 범한 자에게 임한 것과 같이 흑암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10 “그래서 아담아 이 밤이 이와 같이 너를 속였느니라. 이 밤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요. 열두 시간 동안만 있느니라. 이 밤이 지나면 낮이 다시 오리라.

11 “그러므로 너는 탄식하지 말며 동요하지 말며, 이 흑암이 길고 곤비하다고 마음에 말하지 말며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마음에 말하지 말라.

12 “네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둠이 형벌이 아니니라. 아담아 내가 낮을 만들고 해를 그 속에 두어 비취게 하였나니 이는 너와 네 자손으로 네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3 "네가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나올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나 내가 강요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들려지게도 아니하며, 입을 다물게도 아니하며, 너의 타락으로 너를 저주하지 아니하며, 빛에서 나와 어둠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아니하며,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것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아니하였노라.

14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었고 나는 너로부터 너와 같은 빛의 자녀들을 내어 놓기를 원하였노라.

15 “그러나 내가 창조를 완성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기까지 네가 내 명령을 단 하루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내가 그 나무에 대하여는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명하였고, 자신을 속였던 사탄이 너희를 속이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 나무의 목적을 알게 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노라. 그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며 심지어 그 아래에 앉지도 말며 그것에 굴복하지도 말라 하였노라.

18 "아담아, 내가 만일 너에게 임하여 나무에 관하여 네게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도 없이 너를 버려두고 네가 범죄하였더면, 내가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아니한 것이 내 잘못이 되었을 것이라;

너는 돌아서서 나에게 책임을 돌렸을 것이다.

19 “그러나 내가 명하여 경고하였지만 네가 넘어졌도다. 이는 나의 피조물이 나를 책망할 수 없게 하려 함이로되 오직 그들에게만 책임이 있도다.

20 “아담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이 일하고 거기서 수고하도록 낮을 만들었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일로부터 쉬고 들판의 동물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을 만들었노라.

21 “아담아, 이제 어둠이 조금 남았고, 곧 낮이 나타나리라”

14장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최초의 예언.

그런 다음 아담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거두어 다시는 이 어둠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시려면 나를 어둠이 없는 곳으로 옮기시옵소서"

2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매일 내가 너를 위해 결심하였노니 이 어둠은 너로부터 지나갈 것이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다시 네가 가장 오랫동안 갈망하던 빛의 거처이며 어둠이 없는 동산으로 들일 것이다. 나는 천국의 왕국 안에 있는 그 곳으로 너를 들일 것이다"

3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범죄로 인하여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비참함은 너를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내가 원하노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네 자손의 육신이 될 때, 네가 겪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리니 그 때에 이 동굴에 임한 흑암이 음부에서 내게 임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의 육체 안에 있을 때에 그리할 것이라.

5 “또 해가 없는(시간을 초월하는) 내가 년과 때와 월과 날을 계산하는 데 복종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중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6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의 교제를 그치셨습니다.

15장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정하신 날이 차기까지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16장

첫 번째 일출. 아담과 하와는 일출이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오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동굴에 서서 기도하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2 그들이 그 빛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3 아담이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입구에 이르러 서서 얼굴을 동쪽으로 돌린즉 해가 빛나는 광선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의 몸에 그 열기를 느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이 불꽃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 나왔다고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4 이에 그가 울며 그의 가슴을 치며 땅에 엎드리어 간구하여 이르시되:--

5 “오 주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소멸하지 마옵소서 아직 내 생명을 땅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6 그는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 아담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를 듣고 그를 경외하는 동안에는 아담이 그 찬란한 햇빛을 보지 못하였고 그 타오르는 열기가 그의 몸에 닿지 아니하였습니다.

8 그러므로 그는 타오르는 태양광선이 닿을 때에 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정하신 모든 날 동안 그와 함께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 아담도 생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흑암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셨는데, 보라, 그가 이 해를 뜨게 하여 뜨거운 불로 우리를 치게 하시는구나.

10 그가 마음에 이같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 “아담아 일어나 서있으라. 이 해는 하나님이 아니요. 낮에 빛을 주도록 창조되었고 내가 동굴

에서 너에게 말하였노니 '새벽이 갑자기 나타나고, 낮에 빛이 있을 것이라'

12 "그러나 나는 밤에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13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의 교제를 그치셨습니다.

17장

뱀의 장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굴 어귀에서 나와 동산으로 갔다.

2 그러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사탄이 나온 서쪽 문 앞에서 그들이 그 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문으로 오고 있는 사탄이 된 뱀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저주로 인하여 비참하게 티끌을 핥으며 땅에 그 가슴으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3 옛적에는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높았으나 이제는 변하여 미끄럽고 가장 비천하여 가슴으로 기어 다니고 배로 다녔습니다.

4 그리고 그것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나, 변하여 그들 중에서 가장 흉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는 대신 이제 흙먼지를 먹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가장 좋은 곳에서 사는 대신에 이제는 흙먼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모든 동물들이 그 아름다움에 벙어리가 될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혐오스럽게 되었습니다.

6 그리고 또, 뱀이 사는 아름다운 거처에 다른 모든 동물들이 와서 뱀이 마신 그 물을 똑같이 마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뱀이 독을 품게 된 뒤로는 모든 짐승이 그의 거처에서 달아나 그가 마신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18장

뱀과의 필사적인 전투.

저주받은 뱀은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 머리가 부풀어 오르고 꼬리에 서서 피처럼 붉어진 눈으로 마치 그들을 죽일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2 그 뱀이 하와를 향하여 곧바로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한편 아담은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뱀을 칠 지팡이가 없었고 그것을 죽일 방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3 아담은 하와를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뱀에게 다가가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 뱀이 그를 향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4 “아담아, 내가 너와 하와 때문에 미끄럽게 변하고 배로 기노라” 그리고 그 큰 힘으로 아담과 하와를 엎드러뜨리고 죽이려는 듯이 짓밟았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서 뱀을 내쫓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이 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처음에는 내가 너로 말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배로 다니게 하되 말을 못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노라.

7 “그러나 이제 너는 벙어리가 되어 너와 네 족속이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 처음에는 내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파멸하였더니 이제는 내 피조물을 죽이려 함이로다”

8 그러자 뱀이 벙어리가 되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9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람이 하늘에서 불게 되어 아담과 하와에게서 뱀을 끌어내어 바닷가에 던지매 그것이 인도에 떨어졌습니다.

19장

짐승들이 아담에게 복종하니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담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2 “오 주님 내가 동굴에 있을 때에 내가 주께 말하기를 들짐승이 일어나 나를 삼키고 내 생명을 땅에서 끊으리라 하였나이다”

3 아담이 그에게 당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을 쳐서 시체 같이 땅에 엎드러지매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4 “아담아 이 짐승은 하나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짐승과 기타 움직이는 것들로 동굴에 이르게 할 때에 뱀이 함께 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너에 대항하여

일어났으리라. 그리하여 네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너의 마음에 떨어졌으리라.

5 “저 저주받은 자가 사악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른 짐승과 함께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노라.

6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언약한 그 날의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20장

아담은 하와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울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옵소서. 뱀이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어나 우리를 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그 뱀이 당신이 손수 만드신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녀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가증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이 산에서 너희에게서 쫓아내었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는 어떤 것도 거기 두지 아니하리라”

3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며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21장

아담과 하와는 죽기를 시도한다.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2 열기에 그들의 얼굴에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더위에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3 그러나 그들이 울었던 곳은 높은 산에 가깝고 동산 서쪽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 아담이 그 산 꼭대기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찢기었고 그의 살은 벗겨졌습니다. 그

에게서 많은 피가 흘러나와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5 그 사이에 하와는 산 위에 서서 그를 위하여 울었고, 그리하여 쓰러졌습니다.

6 그녀가 이르되 “나는 그를 뒤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라”

7 그리고 그녀도 그를 뒤따라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에 찢기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8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9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네게 행한 이 모든 재앙이 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5500년의 언약도 바꾸지 못하리라”

22장

기사도 정신의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가 더위에 시달리며 걷기도 피곤하고 이 세상에도 싫증이 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 나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 내어 안식케 하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2 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현재도 아니요 네 날이 다하기 전에는 그리할 수 없느니라. 네 날이 다하는 그때 내가 이 비참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3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동산에 있을 때에는 더위도 없고 번민도 없고 자주 움직이지도 아니하였고 떨림도 두려움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후로 이 모든 환난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4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는 내 빛과 내 은혜가 너의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어겼을 때 이 땅에서 너에게 슬픔과 불행이 닥쳤다"

5 아담이 울며 이르되 “주님 이로 말미암아 나를 끊지 마옵소서. 큰 재앙으로 나를 치지 마옵소서. 내 죄대로 갚지 마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주의 명령을 범하고 버렸나이다. 사탄이 우리를 속였을 때에 주와 같은 신이 되려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땅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번민과 걷는 수고와 자주 돌아다니는 것과 이 산을 오르는 것과 그것으로 죽는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23장

아담과 하와가 허리를 동여매고 최초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은 더 울며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행할 일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2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3 아담과 하와가 발로 일어서니 아담은 하와에게 "너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나도 띠를 띠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담이 말한 대로 띠를 띠었습니다.

4 아담과 하와는 돌을 가져다가 제단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산 밖 나무에서 잎사귀를 가져다가 그들이 흘렸던 피를 바위 표면에서 닦았습니다.

5 모래 위에 떨어진 것은 그것을 섞여진 흙과 함께 취하여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6 아담과 하와가 제단 아래 서서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1]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소서. 동산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찬양과 찬송이 끊임없이 당신 앞에 올라갔었나이다.

7 “그러나 우리가 이 낯선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순전한 찬양도, 의로운 기도도, 명철한 마음도, 달콤한 생각도, 공의로운 모략도, 긴 분별력도, 정직한 감정도, 우리의 밝은 성품도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의 처음과 같은 모습에서 변화되었습니다.

8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돌들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처음에 동산에서 주께 찬송했던 것 같이 그것을 우리 손에서 받으소서"

9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주 [1]

16:1 우리 주님(예수님)보다 약 150년 전에 사용된 주기도문의 원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 위와 땅 아래에서 당신을 기억함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고대의 성자들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다스리시리이다. 아멘.

24장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생한 예언.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분의 명령이 없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2 하나님이 그 앞에서 밝은 불을 보내사 그들의 제물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3 그가 그들의 제물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말하시되 “아담아 네가 네 피를 흘린 것 같이 내가 네 씨의 육신이 되었을 때에 나도 내 피를 흘릴 것이요, 아담아 네가 죽은 것 같이 나도 죽으리라. 네가 제단을 쌓은 것 같이 나도 제단을 땅에 만들고 네가 네 피를 그 위에 드린 것 같이 나도 내 피를 땅의 제단에서 드리리라.

5 “네가 그 피로 죄 용서함을 구한 것 같이 나도 내 피로 죄를 용서하여 그 가운데서 죄를 도말하리라.

6 “아담아 내가 이제 네 제물을 받았으나 내가 너와 한 언약의 날이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이 차면 내가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7 “그런즉 이제 네 마음을 굳게 하라. 고난이 닥치거든 내게 제물을 드리라. 그리하면 네가 은혜를 입으리라”

25장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배의 확립.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종종 자기자신을 죽이고 그의 피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2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다시는 그 산에서 뛰어내린 것과 같이 스스로 죽지 말라"

3 아담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주의 계명을 범하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나왔음과 주께서 내게서 빼앗으신 밝은 빛과 내 입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찬양과 나를 덮은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즉시 나 자신을 끝장 내고자 하였나이다.

4 "하나님이여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멸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가 죽을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살리소서.

5 "이로 말미암아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사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을 잔혹하고 가혹하고 완전한 파멸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6 그리고 아담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7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며 그에게 정한 날의 끝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8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물은 이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26장

영생에 대한 아름다운 예언(15절)과 기쁨. 밤이 임함.

그런 다음 아담은 하와를 데려갔고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보물의 동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2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산에 있을 때에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동편에서 오는 빛이 우리를 비추었도다.

3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겨졌고 우리를 비추던 빛이 변하여 사라졌고 어둠과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 "또 우리가 감옥과 같은 동굴에 들어가야 하고, 그 동굴의 어둠이 우리를 가리우므로 우리가 서로 분리되었느니라. 너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너를 보지 못하노라"

5 아담이 이 말을 하고 그들은 울며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쳤고 이는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6 그들이 하나님께 해를 그들에게 비추사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이 바위 아래로 다시 오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을 보기보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7 이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큰 슬픔과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전의 평안함 대신에 그들이 처한 모든 고난과 낯선 땅에 그들에게 임한 모든 비참함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서두르지도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아이들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관대하셨습니다.

9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만일 내가 태양을 가져다가 네게 있게 한다면 일과 시와 년과 월이 다 폐하여지고 내가 맺은 언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0 "그리고 너는 돌이켜 긴 재앙 중에 남겨지고,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11 “오히려 너희가 주야로 있는 동안에 오래 참고 마음을 안정시키라. 날이 차고 내 언약의 때가 이를 때까지라.

12 “그러면 아담아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네가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3 “네가 살았던 모든 좋은 것들과 네가 그것들에서 나온 이유를 내가 볼 때에 내가 기꺼이 긍휼을 베풀리라.

14 “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언약은 내가 능히 변개할 수 없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리라.

15 “그러나 언약이 성취된 후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너를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쉬지 않는 빛이 있느니라. 그치지 않는 찬양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그 곳이라"

16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오래 참으라. 동굴에 들어가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어둠은 열두 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칠 때에 빛이 일어나리라”

17 이에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와와 함께 그 앞에 경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동굴로 돌아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서는 슬픔과 통곡이 흘러나왔고, 영혼이 그들의 육신을 떠나기를 소망했습니다.

18 아담과 하와가 서서 기도하되 밤이 캄캄하여 아담이 하와에게서, 그녀도 그에게서 숨겨졌습니다.

19 그들은 서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27장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시험. 마귀는 기만적인 빛의 형태를 취합니다.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이 그들이 어떻게 계속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보고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2 그는 그의 군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들은 큰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3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기도 때문에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보좌를 동굴 입구 근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이 아담과 하와 위에 빛날 때까지 그는 동굴에 빛을 비췄습니다. 한편 그의 군대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 사탄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담이 그 빛을 볼 때에 속으로 그것이 하늘의 빛인 것과 사탄의 군대가 천사들인 줄 생각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굴을 지키게 하고 어둠 속에서 그에게 빛을 주도록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하려 했습니다.

5 그래서 아담이 동굴에서 나와 그들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절한즉 아담이 이로써 아담을 이기고 두 번째로 그를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려 하였습니다.

6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빛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상상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고 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7 "저 큰 빛과 찬송의 많은 노래와 밖에 서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한 무리를 보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 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찬양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여기로 보내졌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8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동굴에 있는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말하였으리라"

9 아담이 일어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10 "주님,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온 다른 신이 당신 외에 세상에 또 있습니까?

11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이 무리가 동굴 입구에 섰음을 보나이다. 그들이 큰 빛 가운데 있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나이다. 만일 그들이 주 외에 다른 신에게 속하였거든 내게 알려주소서. 만일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으면 당신이 그들을 보낸 이유를 나에게 알려 주소서"

12 아담이 이 말을 하고 곧 하나님의 천사가 동굴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담아 두려워 말라. 이는 사탄과 그의 군대이니라. 그가 처음에 너희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에는 뱀 안에 감추어졌다가 이번에는 빛의 천사의 모양으로 너희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에게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속박하려 함이라"

13 이에 천사가 아담에게서 떠나 동굴 입구에서 사탄을 붙잡아 그가 취한 속임수를 벗기고 그의 흉측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를 보았을 때에 놀랐습니다.

14 천사가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신 이래로 그의 형상이 이 흉한 것이로되 그가 그것으로는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였느니라”

15 이에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쫓아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니라”

16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17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굴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18 아침이 되자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것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은 동산을 떠난 것에 대해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28장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목욕할 물가로 인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은 그들이 동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의 군대를 모으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 그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환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로써 그들이 동산에서 나온 것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동산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오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3 아담이 하나님께 손을 펴서 그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4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이 아담에게 이르되 “아담아, 나는 크신 하나님의 천사라. 나를 에워싸는 군대를 보라

5 "하나님이 나와 군대를 보내어, 너를 인도하여 동산 북쪽 경계에 맑은 바다 기슭에 이르게 하고 그 중에서 너와 하와를 목욕시키고 너를 이전의 기쁨으로 일으켜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보내셨느니라"

6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7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붙드사, 그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힘을 보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동산에 있을 때 하와와 같이 굴복하는지 아니면 그가 승리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8 이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르되 “보라 우리가 물의 바다로 가노라” 하고 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9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10 그러나 그들이 동산 북편 산에 이르니 지극히 높은 산이라. 산 꼭대기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가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떨어뜨려 죽이고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와 그의 군대에게만 남게 하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9장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귀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4절).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의 온갖 계략으로 아담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온유하고 간사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큰 음성으로 사탄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2 이에 그와 그의 군대가 도망하고 아담과 하와는 산꼭대기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아래로 넓은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옆에 있는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3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4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사탄이 너와 네 후손을 미혹하려 하는 줄을 알고 깨달아라”

5 아담이 주 하나님 앞에서 울며, 주께서 그에게 위로를 받을 징조로 동산에 있는 물건을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며 구하니라.

6 하나님이 아담의 생각을 보시고 천사 미가엘을 보내어 인도에 이르는 바다까지 보내사 거기에서 금 막대를 가져다가 아담에게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7 하나님이 지혜로 이를 행하사 아담이 동굴에 있을 때에 이 금 막대가 밤에 그를 둘러 빛으로 비취게 하여 그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그치게 하려 하셨습니다.

8 이에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금 막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30장

아담은 처음으로 세상적인 물건을 받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명하사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을 지키는 그룹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향기로운 유향을 가져다가 아담에게 주라 하셨노라”

2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산으로 내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룹에게 말하였습니다.

3 그룹이 "잘 되니라" 말했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4 하나님이 그의 천사 라파엘에게 명하여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룹에게 몰약에 대하여 말하여 몰약을 아담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5 천사 라파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룹들에게 고하매 그룹들이 가로되 “잘 되니라” 그러자 라파엘이 들어가서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6 금 막대기는 보석이 있는 인도해에서 가져왔습니다. 유향은 동산 동쪽 경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에서 나온 몰약, 거기에서 쓴 맛이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7 천사들이 이 세 가지를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곁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8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그것들을 샘물에 담그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물을 뿌려 그들의 슬픔 중에 조금 위로를 받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라”

9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사탄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산꼭대기에서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10 아담이 금 막대와 유향과 몰약을 보고 기뻐하여 우니, 이는 금이 주님이 임할 나라의 증표요 유향은 주님으로부터 온 밝은 빛의 증표인 줄로 생각함이요 그리고 몰약은 주님 안에 있는 슬픔의 증표였습니다.

31장

사흘째 되는 날 보물의 동굴에서 더욱 위로를 받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동산의 물건으로 위로 받기를 구하였거니와 내가 너에 대한 위로로서 이 세 가지 증표를 주었으니 이는 네가 나와 내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라.

2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육신으로 임할 때에 왕들이 나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며, 금을 내 나라의 증표로, 유향을 나의 신격의 증표로, 몰약을 나의 고난과 죽음의 증표로 삼으실 것 임이라.

3 “아담아 이것을 굴 속에 두어 밤을 비춰게 하는 금과 네게 그 달콤한 향을 맡게 하는 유향과 네 슬픔을 위로하는 몰약을 두라”

4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그와 하와는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분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이 세 천사 곧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을 명하여 각각 가져다가 아담에게 주라 하시니 그들은 하나씩 그렇게 했습니다.

6 하나님이 수리엘과 살라디엘을 명하여 아담과 하와를 업어 높은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보물의 동굴로 데려가라 하시니라.

7 거기서 그들은 금을 동굴 남쪽에, 유향을 동쪽에, 몰약을 서쪽에 두었습니다. 동굴 입구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8 천사들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9 금은 막대기 칠십 개요. 유향은 12파운드요. 몰약은 3파운드였습니다.

10 이것들은 보물의 집안에 아담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굴을 "은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가들은 그곳에 의인들의 시체가 있었다고 하여 '보물의 동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1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이 세 가지를 아담에게 주셨으니 이는 주께서 땅의 심장 가운데 계시는 삼 일에 대한 표적입니다.

주: 아담과 하와가 밤에 빛이 없는 삼 일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삼일 동안 빛이 없는 땅의 심장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12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아담과 함께 동굴에 있는 동안에 밤에 그에게 빛을 주었고 낮에는 그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습니다.

32장

아담과 하와는 기도하러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일곱째 날까지 보물의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땅의 열매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여덟째 날 동이 트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와야 우리가 동산의 물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던 것을 가져다 주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3 “그러나 이제 일어나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바다로 가서 그 가운데 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지도 모른다"

4 아담과 하와가 굴에서 나와 전에 자기들이 몸을 던진 바 있는 그 바다 경계에 서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5 “오라, 이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갈 삼십 일의 끝 날까지 거기서 나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한 마음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6 "나는 다른 데로 내려가서 그와 같이 하리라"

7 하와는 아담이 명령한 대로 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담도 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8 삼십오 일 동안 그들이 이같이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33장

사탄은 거짓으로 "밝은 빛!"을 약속한다

그러나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은 동굴에서 그들을 찾고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2 그러나 그가 그들이 물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물 속에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달라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이전 지위로 회복시키고 내 손아귀에서 건져달라고 하는구나.

3 “그러나 내가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물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의 서원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리라”

4 모든 선을 미워하는 자가 아담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와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천사의 형체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5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아담에게 보내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가 처음과 같이 밝은 빛으로 충만함을 받게 됨을 가져왔느니라"

6 “그리고 아담은 그의 회복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당신이 내게로 오도록 하여 내가 그와 같은 빛으로 관을 씌우게 하였나이다.

7 “또 그가 내게 이르되 ‘하와에게 말하라. 만일 하와가 함께 오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의 표적을 그녀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물의 동굴로 데려갔는지, 남쪽에는 금을, 동쪽에는 유향을, 서쪽에는 몰약을 두었는지를’ 이제 그에게로 갑시다"

8 하와는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9 그는 앞서 갔고, 그녀는 아담에게 이르기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녀에게서 몸을 숨겼고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10 그녀가 와서 물가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고 있는 아담 앞에 섰습니다.

11 그녀가 그를 부르자 그가 돌아서서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그가 그녀를 보고 울고 그의 가슴을 치며; 그의 슬픔의 괴로움에서 그는 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2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비참함과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것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물에서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높은 언덕으로 하와에게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가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리 오라' 하였습니까?"

13 그 때 그녀는 자기에게 나타나 표적을 준 천사의 말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14 그러자 아담은 근심하며 그녀에게 그것이 사탄인 줄 알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갔고 둘 다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15 그들이 동산에서 나온 지 칠 일 만에 두 번째로 물에 내려가니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6 그들은 삼십오 일 동안 물 속에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이 동산을 떠난 지 모두 사십이 일이었습니다.

34장

아담은 하와의 창조를 회상합니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십삼 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들이 근심하며 울며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주리고 목마름과 금식과 기도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큰 슬픔으로 인하여 말랐습니다.

2 동굴에서 나와 동산 서쪽 편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 그들은 거기 서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4 그들의 기도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창조주이시여. 주께서 네 개의 원소를 모으라고 명하사 주의 명령대로 모였더니,

5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손을 펴사 땅의 흙의 한 요소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요일 세 번째 시간에 나를 동산으로 데려갔고, 동굴에서 그것에 대해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6 “그러므로 처음에는 나는 성품이 밝았기 때문에 밤낮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빛 가운데에 살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밤낮을 알게 하도록 빛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오 주님, 나를 창조하신 제 삼시에 또 주께서 모든 짐승과 사자와 타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어 오셨나이다. 주께서 이들은 나보다 먼저 금요일의 첫 번째 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8 “또 주의 뜻은 그들을 하나하나 적당한 이름으로 부르게 하려 하셨고, 주께서 내게 총명과 지

식과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생각을 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뜻대로 이름을 부르게 하려 하셨나이다.

9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과 그들에 대하여 내게 주신 권세를 좇아 그들 중 한 짐승도 내 지배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사오나 이제는 그들이 다 내게서 떠나갔나이다.

10 “금요일 제 삼시에 주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가까이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신 그 나무에 관하여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동산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11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죽음으로 벌하셨더라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었을 것입니다.

12 “또 주께서 그 나무에 관하여 내게 명하실 때에 내가 그 나무에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며 거기를 지나가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는 하와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아직 그녀를 창조하지도 아니하셨고 ,아직 그녀를 내 옆구리에서 취하지도 아니하셨고, 그녀는 당신에게서 이 명령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13 “주님, 그 금요일의 제 삼시가 끝날 무렵에 주께서 나로 졸게 하시며 잠을 자게 하셨으므로 내가 잠이 들며 깊이 잠들었나이다.

14 “주께서 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어 내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더니 내가 깨어서 그녀를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제부터는 여자라 칭하리라’ 하였나이다.

15 “하나님이여 주의 뜻으로 나를 졸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셔서 하와가 내 옆구리에서 곧 나오게 하신 것을 그녀가 나올 때까지 나는 그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지 못했고, 오 나의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이 얼마나 두려우며 위대하신지 나는 목격할 수 없었나이다.

16 “여호와여 주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둘을 광명한 몸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찬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리지도 말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슬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마음의 혼미함, 고통, 굶주림, 피로도 알지 못하였나이다.

17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주의 법을 어겼으므로 이제 주께서 우리를 낯선 땅으로 이끄셨으며 우리에게 고통과 혼미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임하게 하셨나이다.

18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동산에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사 그것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것을 주소서.

19 "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 지 여러 날이요. 우리의 육체가 마르고 우리의 기력이 쇠약해지고 혼미함과 울음으로 우리 눈에서 잠이 사라졌나이다.

20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여 감히 나무 열매를 조금도 거두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범죄할 때에 우리를 아끼시고 죽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이다.

21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나이다.

2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 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고 곧 뿌리째 뽑으시리라.

23 “그런즉 하나님이여 내가 하와와 함께 이 곳에 이르렀사오니 원하건대 동산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것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24 "우리가 땅의 열매와 그 외에 부족한 모든 것을 사모함이니이다"

35장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통곡과 탄식을 다시 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아담아 네가 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알지 못했으며, 기진함도 괴로움도 알지 못했으며, 육체의 쇠약함과 변화도 알지 못했으며, 잠도 네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네가 범죄하여 이 낯선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모든 시련이 네게 닥쳤느니라."

36장

무화과

그러자 하나님은 불의 칼을 손에 들고 동산 문을 지키는 그룹들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2 그룹들이 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동산에 들어가서 두 가지에 무화과 두 개를 가져왔으니 각 무화과가 잎사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 다니실 때에 자신을 숨겼던 두 나무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3 아담이 대답하되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주의 소리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숨었나이다”

4 그룹들이 무화과 두 개를 가져다가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는 불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의 육체로 인하여 그룹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입니다.

5 (죄를 짓기 전) 처음에는 천사들이 아담 앞에서 떨며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담이 천사들 앞에서 떨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6 아담이 가까이 와서 무화과 하나를 취하고 하와도 차례로 와서 하나를 취하였습니다.

7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손에 들고 볼 때에 그들이 자신을 숨겼던 그 나무들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37장

사십삼 일의 속죄는 한 시간의 죄를 속량하지 못한다(6절).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무화과와 그 잎사귀를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밝은 성품을 빼앗겼을 때에 몸을 가렸으나 이제는 그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과 괴로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노라.

2 "그러므로 하와야 이제 너와 나 우리가 삼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자"

3 아담과 하와가 이같이 자신을 삼가하여 이 무화과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4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금요일 여섯시에 주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광명한 성품을 빼앗겼나이다. 세시간도 못 넘기고 우리는 죄를 지은 후 동산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나이다.

5 “그러나 주께서 저녁에 우리를 그 곳에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시간 주께 범죄하였사온데 이 모든 시련과 슬픔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나이다.

6 “사십삼 일과 더불어 모든 날들이 우리가 범한 그 한 시간을 속량하지 못하나이다.

7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의 명령을 범한 대로 주 앞에서 갚지 마옵소서.

8 “하나님이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 실과를 먹고 살게 하시고 돌이켜 이 땅에서 고난과 그 밖의 환난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9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범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동산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룹을 보내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 우리가 범죄한 후에 기진함을 몰랐을 것이니이다”

10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날을 견디고 고난을 받았사오니 이 사십 삼 일을 우리가 범한 한 시간과 같게 하소서"

38장

"5500년이 성취되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2 “아담아 네가 구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금은 주지 아니하고 5500년이 차면 주리라.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니 너와 하와와 네 의로운 자손이 먹고 영생하리라.

3 “그러나 이 사십삼 일 동안은 네가 내 명령을 어긴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없노라.

4 “아담아 네가 숨어 있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어 먹게 하였노라. 하와와 함께 가서 먹으라.

5 “내가 네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네 소망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이루기까지 견디라”

6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39장

아담은 이제 조심스럽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서 무화과를 취하라 내가 다른 것을 취하리라. 우리 동굴로 가자”

2 아담과 하와는 각각 무화과를 가져다가 동굴로 갔습니다.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싶어지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내가 이 무화과의 실과를 먹기가 무섭구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4 그래서 아담이 울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이 무화과를 먹지 아니하고 나의 주린 것을 채우소서. 내가 먹은 후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하나님,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무엇을 바라며 구하리이까"

5 또 그가 말하되 “나는 그것을 먹기를 두렵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0장

최초의 인간 굶주림.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오 아담아 어찌하여 (범죄하기 전에는) 이 두려움과 이 금식과 이 염려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찌하여 이 두려움이 없었느냐?

2 "그러나 네가 이 낯선 땅에 와서 거할 때에는 네 동물의 몸으로는 땅의 양식이 없이는 땅 위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을 강화하고 그 힘을 회복할 수 없느니라"

3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41장

최초의 인간 갈증.

그런 다음 아담은 무화과를 가져다가 금 막대 위에 놓았습니다. 하와도 그녀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유향 위에 놓았습니다.

2 각 무화과의 무게는 수박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열매가 이 땅의 열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날 밤 내내 서서 금식하였습니다.

4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해가 돋았고 아담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와에게 이르되:--

5 “하와야 오라. 우리가 동산 경계 남쪽으로 가자. 그 강이 흘러 네 머리로 갈라지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구하리로다.

6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먹이지 않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를 구하고 이 땅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 달라고 구하자"

7 하와는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동산 남쪽 경계에 이르니 동산에서 조금 떨어진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8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이번 한 번만 그들을 돌보사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구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9 두 사람의 이 기도 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10 “주님 내가 동산에 있을 때에 생명나무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을 때에 내 마음이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몸도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였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지금의 저가 있습니다.

11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생명수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12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죽었사오며 내 육체가 갈증으로 바싹 말랐나이다. 생명수를 내게 주사 내게 마시게 하옵소서.

13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 재앙과 시련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동산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이 땅외에 다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42장

생명수의 약속.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번째 예언.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2 “아담아 네가 '안식하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라' 한 말에 대하여는 이 땅과 다른 땅이 아니요. 오직 쉼이 있는 천국의 왕국이요.

3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네 심판이 지나고 성취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4 “그 때에 내가 너와 네 의로운 후손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하고 네가 지금 구하는 나머지도 내가 너와 그들에게 주리라.

5 “또 네가 이르기를 ‘생명수를 내게 주어 내가 마시고 살게 하라’ 하면 오늘이 아니라 내가 음부에 내려가 놋문을 부수고 철의 왕국을 산산조각으로 으깨는 날에 이루어지리라.

6 "그러면 내가 자비로 네 영혼과 의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내 동산에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라.

7 “또 네가 구하는 생명수에 대하여 오늘은 너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골고다 땅에서 내가 내 피를 네 머리에 흘리는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8 “그 때에 내 피는 생명수가 될 것임이라. 그뿐 아니라 나를 믿는 네 자손의 모든 자에게라. 이로써 그들에게 영원히 쉼이 되리라”

9 주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을 때에는 이 시련이 네게 오지 아니하였느리라.

10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어기므로 이 모든 고난이 닥쳤느니라.

11 "이제 또한 네 육체가 먹고 마실 것을 요구하리니 그런즉 네 곁에 지면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12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13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경배하고 강물에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굴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그 옆에 큰 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43장

마귀가 방화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 동굴 옆에 있는 저 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불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노라”

2 “거기에 구울 떡도 없고 끓일 국물도 없고 이 불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노라.

3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번개같은 불 칼을 가진 그룹들을 보내신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넘어져 시체 같이 된 이후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4 “그러나 이제 하와야, 보라, 이는 그룹의 손에 있던 불과 같은 것이니 하나님이 보내사 우리가 거하는 동굴을 지키게 하신 것이라.

5 “하와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사 우리를 동굴에서 쫓아내실 것 임이라.

6 “하와야 우리가 저 동굴에서 그의 명령을 또 어겼으므로 그가 이 불을 보내어 그 동굴을 사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7 “하와야 우리가 참으로 이러하면 어디 거하겠으며 주님의 면전에서 어디로 피하리요. 동산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그곳의 좋은 것들로 유리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어둠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이 동굴에 우리를 두어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느리라.

8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다른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리요? 그 땅의 어둠이 이 땅의 어둠보다 훨씬 더 클 줄을 누가 알겠느냐?

9 "그 땅에서 낮이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오 하와야, 거기가 멀까, 가까울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놓을 그 곳은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다, 오 하와야!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항상 그분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막으실 것인가?

10 "하와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위안을 얻고 있는 이 땅보다 더 낯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서 도말할 것이요.

11 "하와야 우리가 동산과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어지면 어디서 그 분을 다시 만나 금과 유향과 몰약과 무화과나무 열매를 좀 달라고 구하겠느냐?

12 "우리가 그 분을 어디서 만나 우리를 두 번째 위로하게 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언약에 대하여 어디서 그 분을 만나며 그 분이 우리를 생각하시겠느냐?"

13 아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와는 계속해서 동굴과 그 주위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14 그러나 그 불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나무와 마른 풀을 모아서 동굴에 가져다가 불을 지르며 그 동굴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15 이는 아담과 하와를 근심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 함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긍휼로 그 동굴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동굴 주위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그 불로부터 지키게 하심이었습니다.

17 그리고 이 불은 정오부터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흔다섯째 날이었습니다.

44장

인간에 대한 불의 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서서 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불이 무서워서 동굴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2 사탄이 계속 나무를 가져다가 불 속에 던지매 그 불꽃이 높이 치솟아 동굴 전체를 덮을 때까지 스스로 생각하기로 동굴을 큰 불로 태울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그가 사탄을 저주할 수도 없고 말로 해할 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그를 제압할 권세가 없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그 천사는 악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네가 전에 내 종들을 미혹하였더니 이번에는 멸하려 하였느니라.

5 "나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내가 너와 네 군대를 땅에서 멸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참았노라"

6 그러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하루 종일 숯불처럼 동굴 주위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온 지 사십육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7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불의 열기가 다소 식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동굴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 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8 그들과 동굴 사이를 가르면서 자기를 향하여 타오르는 불로 인하여 둘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9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이 불을 보라. 우리가 그 중에서 분깃을 받았나니 이 불이 전에는 우리에게 굴복하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창조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불은 그 본성이 바뀌지 않고, 창조 때부터 바뀌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이제 불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도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태우리라"

45장

사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아담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보시옵서 이 불이 우리와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명하신 동굴 사이를 갈라 놓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나이다.

2 하나님이 아담을 들으시고 그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가라사대:--

3 “아담아, 이 불을 보라 그 불꽃과 열기가 즐거움의 동산과 그 안의 좋은 것과 얼마나 다른가!

4 “네가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네게 항복하였으나 네가 내 명령을 어긴 후에는 다 너에게 대항하여 일어나도다”

5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오 아담아, 보라 사탄이 얼마나 너를 높였느냐! 그는 너로부

터 신격을 빼앗았으며, 나처럼 높은 지위를 박탈하고, 그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마침내 너의 적이 되었구나, 너와 하와를 태울려 했던 이 불을 지핀 자는 그 자이다.

6 “아담아 어찌하여 그가 너와의 언약을 단 하루도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그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너에게 있었던 영광을 빼앗겼느냐?

7 "아담아, 그가 너와 언약을 맺을 때에 너를 사랑한 줄로 너는 생각하였느냐? 아니면 그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높이 올리기를 원한 줄로 생각하였느냐?

8 “그러나 아니라. 아담아 이 모든 일을 행함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너를 빛에서 어둠으로, 높은 곳에서 타락으로, 영광에서 비천함으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안식에서 금식과 기진함으로 끌어내리기를 그가 원했노라"

9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네 동굴 주변에 붙인 이 불을 보라, 너를 에워싸고 있는 이 이적을 보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너희와 네 후손을 둘러 쌀 줄을 알라. 그가 너희를 불로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내려가게 하려 함이니라.

10 “그 때에 너희가 그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와 너희 자손을 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주변의 큰 불로 인하여 지금 네 동굴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낼 내 말씀이 이를 때, 오직 내가 올 때에 그리되리라.

11 “지금은 내 말씀 곧 내 말씀이 올 때까지 여기서 쉴 길이 없노라. 그때에 그가 길을 내시리니 네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담이 동굴을 통과할 때까지 동굴 주위를 태우고 있는 불에게 스스로 갈라지도록 그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이 스스로 갈라지고 아담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12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46장

"내가 몇 번이나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나..."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 사이의 길에 이르자, 사탄은 회오리바람을 불 속으로 불어넣고 아담과 하와 위에 불타는 숯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그을렸고 숯불이 그들을 태웠습니다.

2 아담과 하와가 타는 불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타는 불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옵소서”

3 이에 하나님이 사탄이 불붙게 한 그들의 몸을 보시고 타오르는 불을 멈추게 하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4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에 대한 사탄의 사랑을 보라. 너에게 신격과 위대하심을 줄 것처럼 가장한 사탄이 너를 불사르며 땅에서 멸절하려 하는도다.

5 “그런즉 아담아. 나를 바라보라.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몇 번이나 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였겠느냐?”

6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이르시되 “동산에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지고 신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찌니라’ 말했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가 너희 몸을 불로 사르고 동산의 맛 대신에 불의 맛을 너로 맛보게 하였으며 불이 타는 것과 그 악함과 그것이 너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로 보게 하였느니라.

7 “그가 너희에게서 빼앗은 좋은 것(선)을 너희 눈으로 보았고 진실로 그가 너희 눈을 뜨게 하였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던 동산을 보았고, 사탄이 너희에게 임한 악한 것(악)도 보았느니라. 그러나 신격에 관해서는 그가 그것을 네게 줄 수도 없고 그의 말을 네게 성취할 수도 없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에 대하여 원한을 품었느니라"

8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47장

마귀의 계략.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몸을 태운 불에 여전히 떨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2 “볼지어다 이 세상에서 불이 우리의 살을 살랐거니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며 사탄이 우리 영혼을 벌하리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비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길고 먼 것이 아니냐?”

3 아담과 하와는 동굴에 한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축복하며 동굴에 들어갔

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굴 주변의 불을 보았을 때에 그들 생각에 결코 동굴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해가 질 때에 불이 여전히 타서 동굴 안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있어 그들이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그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산에서 나온 지 사십칠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 아담과 하와는 익숙한 대로 잠을 자려고 동산 곁 산 정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6 그들은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산꼭대기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7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은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그에게 닥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러나 내게는 언약으로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곤경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을 내가 전에 있던 왕국에 거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아담을 죽일 것이라.

8 땅에서 그가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내 자신의 영역으로 남아야 될 왕국을 계승할 어떤 자손도 없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것이고 그가 나를 나의 군대와 함께 회복시키실 것이라'

48장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다섯 번째 발현.

이 후에 사탄이 그의 군대를 불러 그들 모두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2 "오, 우리 주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3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 아담이 우리 나라를 빼앗은 자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함께 모여 그를 죽이거나 바위를 그와 하와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들을 그 바위 아래에 뭉개버리자"

4 사탄의 군대가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잠든 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5 이에 사탄과 그의 군대가 크고 평평하고 흠 없는 큰 반석을 취하여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반석에 구멍이 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그 바위 구멍이 그들에게 임할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탈출하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6 그가 그의 군대에게 이르되 “이 돌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평평하게 던지라. 그것이 그들에게서 다른 데로 굴러가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것을 던진 후에는 지체없이 도망하라”

7 그들이 그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 위에 일종의 오두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8 그러나 그 반석이 무너지매 온 땅이 그것으로 인하여 진동하고, 바위의 크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9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잠에서 깨어나, 자기들이 오두막 같은 바위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 때 그들은 하늘 아래 있었고 오두막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10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산이 굽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요동하였느냐? 어찌하여 이 반석이 장막 같이 우리 위를 덮였느냐?

11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으로 이 옥에 가두시려 하심이냐? 아니면 그가 땅을 닫으시겠느냐?

12 “우리가 그의 명령 없이 동굴에서 나온 것과 우리가 그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동굴을 떠나 여기 오기까지 우리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하셨느니라”

13 하와가 이르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땅이 진동하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이 우리 위에 장막을 이루면 아담아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담아, 우리의 형벌이 길 것임이요.

14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과 우리 위에 장막 같이 덮인 이 반석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하자"

15 아담이 이 곤경에 관하여 알게 해 달라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아침까지 서서 기도했습니다.

49장

부활의 첫 번째 예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 "아담아, 네가 동굴에서 나왔을 때 여기로 오라고 누가 충고하였느냐?"

3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동굴 안에서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한 까닭이니이다”

4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아담아, 네가 하룻밤 동안의 불의 열기를 두려워하거니와 네가 지옥에 거할 때에는 어찌하리요?

5 “그러나 오 아담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반석을 차양처럼 너희 위에 펼쳐 너희를 괴롭게 하였다고 네 마음에 말하지 말라.

6 "이는 신격과 위엄을 네게 약속한 자인 사탄에게서 났느니라. 그가 이 반석을 던져 너와 하와가 깔려 죽게 하려 한 것이라. 그래서 네가 땅에 살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7 “그러나 너희를 불쌍히 여겨 그 반석이 너희 위에 떨어질 때 내가 명하여 너희 위에 차양을 만들고 너희 아래에 반석이 스스로 낮아지게 하였노라.

8 “아담아 내가 땅에 임할 때에도 이 표징이 나에게 일어나리니 곧 사탄이 유다 백성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것이요. 그들이 나를 반석 속에 두며 큰 돌로 무덤을 봉인 할 것이라. 그리고 나는 사흘 밤낮을 그 반석 안에 머물 것이다.

9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니 아담아, 그것이 너와 나를 믿는 너의 후손에게 구원이 되리라. 그러나 아담아, 내가 사흘 밤낮이 지나기까지 이 반석 아래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아니할 것이라"

10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11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밤낮을 반석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12 그들이 그들의 동굴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이 같은 곳에 왔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13 그러나 사흘 밤낮 후에 하나님이 반석을 여시어 그 아래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살은 마르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울음과 슬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50장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보물의 동굴에 들어가 그날 저녁까지 종일 그 동굴에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2 이는 그들이 동산을 떠난 지 오십 일째 입니다.

3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시 일어나 그날 밤 내내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4 날이 새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가서 우리 몸을 위하여 일하자"

5 그들이 동굴에서 나와 동산 북쪽 경계에 이르러 몸을 가리킬 것을 구하니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일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더러워졌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6 아담이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몸을 가릴 것을 보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7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하와를 데리고 너희가 전에 금식하던 해변으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양의 가죽을 보리니 그 살은 사자에게 삼키고 그 가죽은 남았있노라. 그것들을 가져다가 의복을 만들고 입어라"

51장

"당신이 그를 따랐던 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와를 데려다가 그들이 한때 금식했던 강가에 있는 동산 북쪽 끝에서 동산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2 그러나 그들이 길을 가다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악한 자 사탄은 아담의 옷에 대해 존중하시는 아담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 그것이 그를 근심하게 하여 그가 양 가죽이 있는 곳으로 급히 가서 그것을 취해 바다에 던지거나 불에 태워 아담과 하와가 찾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와서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가죽 옆에 그를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그와 그의 흉한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5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뱀에게 숨겨졌던 그 자니 곧 너희를 미혹하고 빛과 영광 안에 있던 너희로부터 빛과 영광의 예복을 벗기었던 그 자니라.

6 "그가 네게 위엄과 신성을 약속하였으니 그 위에 있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의 신성이 어디 있느냐? 그의 빛이 어디 있느냐? 그 위에 머물렀던 영광이 어디 있느냐?

7 "그의 형상이 흉하여 천사들에게 가증한 자라. 그리고 그는 사탄이라 불리게 되었도다.

8 "아 아담아, 그가 양가죽으로 만든 이 땅의 예복을 네게서 빼앗아 없애고 너를 그것으로 덮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9 "그런즉 그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기에 그를 따랐느냐? 그의 말을 듣고 무엇을 얻었느냐? 그의 악한 일을 보고 나를 바라보라. 너를 창조하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네게 한 선한 일들을 바라보라.

10 "보라 네가 와서 그를 보고 그의 연약함을 볼 때까지 그를 결박하였으며 그에게 능력이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11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의 속박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52장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옷을 바느질합니다.

이 후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의 창조와 그들의 몸이 땅의 의복으로 덮을 필요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2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하와야 이는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가 덮을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입었을 때에는 죽음의 징조가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이 가죽의 주인들도 죽고 쇠약하였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죽고 숨도 사라질 것이다"

3 아담과 하와는 가죽을 가지고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일어서서 그들의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4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을 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 그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이시니 천사가 아담에게 이르되, “가서 종려나무 가시를 가져오라” 아담이 나가서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6 천사가 그들 앞에서 옷을 준비하는 자의 방법으로 가죽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취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가죽에 찔러 넣었습니다.

7 이에 천사가 다시 일어나서 그 가죽들에 있는 가시들이 숨겨져 마치 한 실로 꿰매어진 것처럼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었고 그분은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9 그때부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 서로의 눈에 가리워졌습니다.

10 그리고 이것은 오십일 일째 끝에 일어났습니다.

11 아담과 하와의 몸이 가려진 후에 서서 기도하여 주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벗음을 가리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내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12 아침에 동이 트며 해가 뜰 때 그들은 관습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13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이 굴 서쪽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 오늘 나가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서쪽 경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53장

서쪽 땅의 예언.

그들이 동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탄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동굴 사이에 숨었더니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두 굶주린 사자의 형체로 그들을 산산조각 내고 삼킬 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2 아담과 하와가 울며 하나님께 사자의 앞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사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4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서쪽 경계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처소가 있던 동쪽 경계를 임의로 떠났느냐?

5 “그런즉 이제 네 동굴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라. 사탄이 너를 미혹하지도 않고 그의 뜻을 네게 이루지 못하게 하라.

6 “아담아 이 서쪽 경계에서 한 씨가 네게서 나와서 그 곳을 채우고, 자기 죄와 사탄의 명령에 순종함과 그의 행위를 좇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임이라.

7 “그러므로 내가 홍수를 저희에게 내리게 하고 저희를 다 덮을 것이요. 의인 중에 남은 자를 건져내고 먼 땅 곧 네가 거하는 땅, 황폐하여 거기에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8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마르고 금식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힘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54장

아담과 하와는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동굴에 서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날 밤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 둘은 동굴에서 나왔다. 그들의 머리는 슬픔의 무게로 산만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그들은 이렇게 걸어서 동산 남쪽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너

머에 동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은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서쪽 문에 서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그들을 죽일 것처럼 주변을 돌았습니다.

4 아담과 하와가 동산 동쪽 경계에 이르러 그 그룹이 지켜보지 아니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였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려 하는 듯이 곁에 서있을 때에 갑자기 손에 번쩍이는 불 검을 든 그룹이 와서 그들을 보자, 그들을 죽이려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동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하실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5 그룹의 칼이 멀리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과 하와 위에 그것을 일으켰을 때, 그 불꽃은 타지 않았습니다.

6 그러므로 그룹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궁금해 서 있었습니다.

7 그는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과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를 멸하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동산에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8 아담과 하와는 그룹들이 화염검을 손에 들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9 그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다른 그룹들이 동산을 지키는 그룹에게 하늘에서 내려와 그가 놀라고 잠잠한 것을 보았습니다.

10 또 다른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가까이 내려오니 그들은 기쁨과 슬픔으로 나뉘었습니다.

11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때 즐겼던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12 그러나 그들은 아담이 죽은 사람처럼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와 하와로 인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르되 "아담이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놓으셨구나. 그가 하나님의 허락없이 동산에 들어가길 소원하면서 이 장소로 왔기 때문이라"

55장

사탄과의 투쟁.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동산에 들어가려 하느냐? 오늘은 아니라,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루어지리라"

2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나부끼는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한 채 귀로 그들의 소리만 들으니, 그와 하와가 울며 천사들에게 이르되:--

3 "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들이여, 나를 보소서. 내가 당신들을 보지 못함을 보소서. 내가 본래 밝은 성품에 있었을 때에 당신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이 하듯이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들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이제 내가 범죄하여 그 밝은 성품이 내게서 떠나고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가 전에 하듯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동물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나와 함께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사 내가 그에게 대항하여 범죄하였음으로 인하여 내게 내리신 사형 선고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라"

6 천사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속인 사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가 동산에서 비참함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평화에서 고난으로; 그리고 기쁨에서 낯선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7 천사들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사탄의 말을 듣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게 성취될 거라고 믿었다.

8 “그러나 오 아담아,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리라.

9 “그가 그 군대를 모으고 속이고 큰 나라와 신성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밖의 약속도 하였느니라.

10 "그의 군대가 그의 말이 옳다고 믿으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

노라.

11 “그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한 순서에 따라 보내었고, 그의 명령 아래에 들어오고, 그의 헛된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였노라.

12 “그 후에 그가 하나님과 싸웠고 또 하나님 앞에 선 후에 그의 군대를 모아 우리와 더불어 전쟁을 하였느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였고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지 못하였으리라.

13 “그러나 그가 우리 가운데서 떨어질 때에 그가 우리에게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하늘나라에 거하였다면 아무 것도, 한 천사도 거기 남지 아니하였으리라.

14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를 이 어두운 땅으로 쫓아내셨으니 이는 그가 흑암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15 “아담아, 그가 너를 속여 동산에서 나와 모든 시련이 네게 닥친 이방 땅으로 나오게 하기까지 그가 계속하여 너에 대항하여 전쟁을 했느니라. 아담아, 네가 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고 그가 또한 너에게 죽음을 가져왔구나"

16 이에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담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에게 참으시기를 구했고, 그리고 그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를 도우시기를 구했습니다.

56장

신성한 위로의 장.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2 “아담아, 저 기쁨의 동산과 이 수고의 땅을 보라. 동산에 있는 천사들, 곧 그들로 가득 찬 천사들을 보라, 네가 복종한 사탄과 함께 이 땅에 홀로 있는 너를 보라.

3 “그러나 네가 만일 내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내 말을 지켰더라면 네가 내 천사들과 함께 내 동산에 있었으리라.

4 “그러나 네가 범죄하여 사탄의 말을 들을 때에 악이 가득한 그의 천사들 가운데 그의 손님이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오는 이 땅에 왔느니라.

5 "아담아, 너를 속인 그에게 그가 네게 약속한 신성한 성품을 주도록 하거나, 내가 너를 위해 만든 동산을 만들거나, 내가 채운 것과 똑같은 밝은 성품으로 너를 채우게 해달라고 하라.

6 "그에게 청하여 내가 너를 지은 몸과 같이 몸을 만들거나 내가 네게 준 것과 같이 하루의 안식을 달라고 하거나 내가 창조한 것 같이 네 안에 합리적인 영혼을 창조하거나 내가 네게 준 이 땅과 다른 땅으로 옮겨달라고 해보라. 그러나 아담아.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아니하리라.

7 “그런즉 나의 피조물인 너를 향한 나의 은총과 자비를 인정하라. 너가 범한 죄를 내가 갚지 아니하고 너에 대한 나의 연민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니 큰 닷새반이 끝날 때에 내가 와서 구하겠노라"

8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리로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불 칼을 손에 든 그룹이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9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위로를 받아 그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10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 대신에 기쁨으로 동굴로 호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1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안고 동산 곁 산으로부터, 노래와 시와 함께, 동굴로 인도하여 내려오니, 그곳에서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기 시작하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을 보내신 창조주께로 떠났습니다.

12 그러나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난 후에 사탄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와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아담을 부르며 "아담아, 오라 내가 말하게 하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13 아담은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주러 온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57장

"그러므로 내가 넘어졌는가...

그러나 아담이 나와서 그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2 사탄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뱀 안에 나를 숨겼고 하와에게 말하여 하와가 내 명령을 듣기까지 꾀어 내 말의 간계로 그녀를 너를 속이기 위해 보낸 자니라, 너와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떠나기까지 너를 속였느니라"

3 아담이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드신 동산을 네가 능히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입히시던 그 밝은 성품으로 똑같이 내게 입힐 수 있느냐?

4 "당신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신성은 어디 있느냐? 당신이 처음에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었던 그 공평한 말은 어디 있느냐?"

5 이에 사탄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에 대하여 말을 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거나 내 말을 이행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내가 구한 것조차 얻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내가 넘어졌었다. 내가 넘어진 것처럼 너를 넘어지게 하였느냐? 나의 꾀를 받는 자는 너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것이다.

7 “그러나 오 아담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제 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내 통치 아래 있고 내가 너의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네게 약속한 날이 성취되기까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8 또 말하되 “우리가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과 네가 구원을 얻을 때를 알지 못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더하여 너와 네 후손에게 살인을 할 것이다.

9 "이것이 우리의 뜻이요. 즐거움이니 우리는 사람의 아들 중 한 사람도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도록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10 "아담아, 우리의 거처는 불타는 불 속에 있다. 우리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우리의 악을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거기 동굴 안에 거주하러 들어갈 때에 내가 너 위에 불씨를 뿌릴 것이다
"

11 아담이 이 말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하와에게 이르되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동산에서 말한 것을 조금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12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할 것이다”

58장

"53일째의 일몰에 대해서 . . . .

그런 다음 아담과 하와는 손을 하나님께 펴서 사탄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시고 사탄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지 말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2 이에 하나님이 곧 자기의 천사를 보내사 사탄을 저희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동산에서 나온 지 오십삼 일째 되는 해 질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아담과 하와가 동굴에 들어가 일어서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네가 보았느니라. 자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자. 우리가 사십일째 되는 날의 끝까지 나오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5 이에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6 그들은 동굴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머물렀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그 기도에서 불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59장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여덟 번째 발현.

그러나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은 그들이 기도를 끝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군대를 부르니 그들이 다 왔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미혹한 아담과 하와가 동조하여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구하매 그들이 사십일 째 끝날까지 동굴에서 나오지 아니할 것이다.

2 "또 그들이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기도를 계속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 보라" 그의 군대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여, 당신의 말씀을 행할 권세가 당신에게 있사옵나이다”

3 그 때에 악이 큰 사탄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십 일의 삼십 번째(or 31번째) 밤에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쳐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4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여 고통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방금 네게 온 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5 아담이 울며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디 계시사 그들이 그렇게 나를 치며 이 고난이 우리 나와 당신 손으로 지으신 하와에게 임하게 하시나이까?"

6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보라, 신성을 주리라 한 그가 네 소유의 주인이요. 지배자이니라. 너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선물은 어디에 있느냐?

7 "아담아, 한 번이라도 그가 나아와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함께 기뻐하며 그의 군대를 보내어 너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였느냐? 이는 네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언에 굴복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그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라"

8 아담이 주님 앞에서 울며 가로되 "주님 내가 조금 범죄하였사오니 그 대가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이 낯선 땅에서 내 영혼을 내 몸에서 취하시옵소서"

9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였더라면 지금 네가 처한 고난에서 쉬었으리라"

10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참으사 사십 일이 차기까지 그와 하와를 동굴에 있게 하셨습니다.

11 아담과 하와는 금식과 기도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힘과 육체가 시들었고 그들은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음식도 마실 것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의 기능도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파서 다음 날 사십 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찬송뿐이었습니다.

60장

악마는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팔십구 일에 사탄이 빛의 옷을 입고 밝은 띠를 띠고 동굴에 왔습니다.

2 그 손에는 빛의 지팡이가 있고 그 모양이 심히 끔찍하나 그 얼굴은 상냥했고 그 말은 달콤하

였습니다.

3 그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변하여 그들이 사십 일을 채우기 전에 동굴에서 나오게 하려했습니다.

4 그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그들이 사십 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그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전에 이미 두 번이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동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겠느냐”

5 이에 사탄이 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동굴에 가까이 와서 말하였습니다:--

6 “아담아 하와야 일어나 바로서라. 나와 함께 좋은 땅으로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같은 살과 뼈라. 처음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노라.

7 “또 그가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세상의 경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동산에 두셨느니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 유하라 하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거하며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노라.

9 “그 때에 그가 나로 잠이 들게 하시고 그가 아담 너를 내 옆구리에서 취하셨으나 내 곁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신성한 손으로 너를 이끌어 동쪽 동산에 두셨느니라.

11 "그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니 이는 하나님이 너를 내 곁에서 함께 있게 하지 아니하셨음이라.

12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아담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아라. 그에게 해는 없을 것이다.

13 "이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 옆구리에서 빼내어 그에게 기쁨을 주었노라"

14 사탄이 또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이 동굴에 있는지 또 너희에게 임한 이 시험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아담이 범죄하였나니 곧 내가 네 옆구리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내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하와도 범죄하였도다. 내가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들이 내게 범죄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슬픔과 곤고의 땅에 거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보라, 그들은 오늘날까지 팔십 일째 고통 중에 있느니라'

15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네 처소로 오게 하고 사탄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주림으로 말미암아 소망없이 누워있느니라'

16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그들을 취하거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평강의 물을 마시게 하며 빛의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이전의 은혜의 상태로 돌이키고 그들을 비참하게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로부터 왔음이라.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며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하여 자책감을 느끼지 말라'

17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고 한탄하여 내 아들아 너를 위하여 내 마음이 참을 수 없었노라.

18 “오 아담아. 내가 사탄의 이름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여 속으로 말하기를 그가 내 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 같이 나를 유혹하지 않도록 나가지 아니하리라.

19 "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자녀들에게로 갈 때에 사탄이 길에서 나를 만나 그가 그들에게 행한 것 같이 나를 치리라'

20 “그 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네가 만나거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를 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늙어 섰느니라. 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21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늙어서 갈 수 없나이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데려가게 하소서.

22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천사들은 실로 그들과 같지 아니하여 천사들과 함께 오기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그들은 네 소생이요 너와 같으므로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라'

23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네게 걸을 힘이 없으면 내가 구름을 보내어 그 동굴 어귀에 내리게 하리니 그 구름이 거기에서 돌아 떠나리라.

24 “그들이 너와 함께 오면 내가 너와 그들을 태울 구름을 보내리라’

25 “그 때에 그가 구름을 명하사 구름이 나를 떠서 네게로 인도하고 돌아갔노라.

26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아, 아담과 하와야, 나의 백발과 나의 연약한 지위와 내가 그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라. 자, 나와 함께 안식할 곳으로 가자"

27 이에 그가 아담과 하와 앞에서 울며 흐느끼기 시작하시니 그의 눈물이 물 같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28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 그의 수염을 보고 그의 달콤한 말을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였으니 이는 그가 진실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9 그리고 그들이 그의 얼굴이 자기들과 같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참으로 그의 자손인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61장

그들은 사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동굴에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 그들이 거기서 조금 나오매 하나님이 사탄이 저희를 이긴 줄 아시고, 사십 일이 끝나기 전에 저희를 이끌어내어 먼 곳으로 데려가 멸하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3 이에 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사탄을 저주하고 그를 그들에게서 쫓아내었습니다.

4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동굴에서 나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5 아담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나이까? 우리가 동굴에 있을 때에 홀연히 선한 노인이 우리에게 나아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이니 너를 데려가 쉴 곳으로 가리라'

6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가 주께로부터 온 사자인 줄을 믿고 그와 함께 나왔으나 그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7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악술의 창시자니 그가 하와와 함께 기쁨의 동산에서 나오게 한 자니라. 이제 참으로 그가 너와 하와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네가 사십 일이

지나기 전에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고, 그는 너의 목적을 헛되이 만들고, 너의 상호 유대를 끊고, 너의 모든 희망을 끊고, 그가 멸망시킬 어떤 곳으로 너를 몰아가려고 하였도다.

8 "그가 너희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9 "그러므로 그가 네 얼굴과 같은 얼굴로 네게 나아와 그것이 모두 사실인 양 증표를 네게 주기 시작하였느니라.

10 "그러나 나는 긍휼과 은총으로 너희를 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너희에게서 쫓아내었노라.

11 "그러므로 아담아 이제 하와를 데리고 네 동굴로 돌아가서 내일인 사십 일까지 거기 있으라. 그리고 나온 후에는 동산 동문으로 가라"

12 이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에게 임한 구원에 대하여 그를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삼십구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13 아담과 하와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힘이 부족한 데서 건져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힘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내내 아침까지 기도하였습니다.

14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동산 동문으로 가자"

15 그리고 그들은 매일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굴에서 나가서 동산의 동쪽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16 이에 아담과 하와가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울 것을 보내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7 그들이 기도를 마치매 힘이 약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8.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아담아 일어나서 무화과 두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19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 동굴에 가까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62장

두 과일 나무입니다.

그러나 악인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위로 때문에 시기했습니다.

2 이에 사탄은 그들을 막고 동굴에 들어가 그 두 무화과를 가져다 동굴 밖에 묻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것을 파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두 무화과가 땅 속에 있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탄의 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덮는 두 개의 무화과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그 것을 동쪽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4 그 두 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덮인즉 사탄이 근심하며 통곡하여 가로되 “저 무화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았을 뻔하였도다. 보라 이제 두 무화과나무가 되었나니 아담이 평생에 먹을 것이로다. 내가 그것들을 묻을 때에 그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영원히 숨기는 게 좋을 뻔 하였도다”

5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략을 엎드러지게 하셨고, 이 성스러운 열매가 없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의 의도를 아셔서 내가 그의 종들에게 세운 모략을 꺾으셨도다”

6 이에 사탄은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떠나 갔습니다.

63장

나무의 첫 번째 기쁨.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동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두 무화과나무가 열매로 뒤덮이고 동굴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내가 보기에 우리가 길을 잘못 온 것 같구나. 이 두 나무가 언제 여기에서 자랐느냐? 원수가 우리를 그릇 인도하고자 하는 것 같구나. 이것 말고 이 땅에 다른 동굴이 있었느냐?

3 “하지만, 하와야 우리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무화과 두 개를 찾자. 무화과 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있던 동굴임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무화과 두 개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동굴이 될 수 없느니라"

4 그들이 들어가서 그 네 모퉁이를 살펴보았으나 두 무화과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5 아담이 울며 하와에게 이르되 “하와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동굴에 들어왔느니라. 그런데 오 하와야. 내가 보기에는 이 두 무화과나무가 우리 동굴에 있던 두 무화과인 것 같으니라. 하와가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6 아담이 일어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동굴로 돌아가서 무화과 두 개를 취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하셨나이다.

7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찾지 못하였사오나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취하여 이 두 나무를 심으셨나이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였나이까? 이것이 참이라면, 이 두 나무와 두 무화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8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담아 내가 너를 보내어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할 때에 사탄이 먼저 동굴에 와서 무화과를 가져다가 동굴 동쪽 밖에 묻었나니 그 무화과를 파괴할 생각을 하였고 좋은 의도로 심지 아니하였느니라.

9 “그런즉 단순히 그를 위해서 이 나무들이 자란 것이 아니요. 내가 긍휼히 여겨 자라게 하였노니 그들이 두 큰 나무가 되어 너희가 그 가지에 덮이게 하고 안식을 취하며 내 능력과 내 기이한 일을 네게 보게 하려 함이라.

10 "또 사탄의 간사함과 그의 악함을 너희에게 보이려 함이라. 너희가 동산에서 나온 이래로 계속해서, 아니, 단 하루도 그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 너희를 통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노라"

11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담아 이제부터 나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와 하와는 피곤할 때에는 나무 아래에서 쉬라. 그러나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12 아담이 울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죽이시나이까? 주의 면전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우리 생명을 지면에서 끊으시리이까?

13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나무들에 처음과 같이 사망이나 그 밖의 악이 있는 줄을 아시거든 우리 동굴 근처에서 그것들을 뽑으시고 시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위와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죽지 않게 하옵소서.

14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들이 위대하며 주의 권능으로 사람의 소원 없이 이 일을 저희에서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주의 권능으로 바위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바

위가 되게 하심이니이다"

64장

아담과 하와는 지상의 첫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강함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더위를 견디는 그의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무화과나무를 처음과 같이 두 무화과로 바꾸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각각 한 무화과를 취하라” 하시니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2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동굴에 들어가서 무화과를 먹고 너희가 죽지 않도록 너희의 배를 부르게하라”

3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해 질 즈음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해가 질 때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4 그들은 무화과를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먹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땅의 음식을 먹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살이 두꺼워지고 마음이 땅의 음식을 좋아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이 이같이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기 천사를 보내사 그들이 주리고 목마르므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6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힘이 없어 금식하면 죽으리라. 그런즉 먹고 몸을 굳게 하라. 너희는 이제 동물의 육체이니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이니라.

7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따서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맛있는 떡과 피의 혼합물을 넣어 주셨습니다.

8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떠났고 아담과 하와는 배불리 먹을 때까지 무화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남은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화과가 이전과 같은 무화과가 되었습니다.

9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 즐거운 마음과 새 힘으로 기도하고 그 밤을 온종일 찬양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팔십삼 일의 끝이었습니다.

65장

아담과 하와는 소화 기관을 얻습니다. 동산으로 돌아갈 마지막 희망은 꺼지게 됩니다.

날이 새매 그들이 자기 규례대로 일어나 기도한 후에 동굴에서 나갔습니다.

2 그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동굴에 두루 다니며 서로 말하되:--

3 "우리가 먹음으로 어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냐? 화 있을진저 우리가 죽을 것이라. 먹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며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몸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낫도다"

4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동산에서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처럼 나쁜 것을 먹지 아니하였도다. 하와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까? 혹 우리의 속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이 고통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5 아담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오 주님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치지 마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사, 약속하신 그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6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시고 즉시 저들이 음식에 적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그들이 죽지않도록 하셨습니다.

7 아담과 하와는 본성의 변화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시간부터 자신이 변경된 존재이며 동산으로 돌아갈 희망이 이제 끊어졌으며 그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 이제 그들의 몸은 이상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위해 음식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육체는 동산에 있을 수 없습니다.

9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동산에 들어갈 우리의 믿음도 끊어졌도다. 우리는 더 이상 동산 거민에게 속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는 흙과 같고 먼지 같으며 땅의 거민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산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까지 우리는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10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은 잠잠해지고 그

들의 중심은 상했고 그들의 갈망은 식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담과 하와는 그 동굴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그들이 먹은 음식 때문에 깊이 잠을 잤습니다.

66장

아담은 첫날 일을 합니다.

음식을 먹은 이튿날 아침 아담과 하와가 동굴에서 기도하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매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구하자"

2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에 몸을 던졌던 동산 남쪽 경계에 있는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둑에 서서 하나님께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 몸이 짐승이 되어 마실 물을 원하노라. 하와와 함께 마시며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4 이에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몸이 상쾌함을 느낄 때까지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마신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전의 습관을 따라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팔십삼 일의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5 그리고 팔십사 일에 그날 그들은 무화과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잎사귀와 함께 동굴에 달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징과 축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후손이 생길 때까지 그곳에 두었습니다.

6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굴 밖에 서서 그들의 몸에 영양을 공급할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7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동굴 서쪽으로 내려가서 검은 흙의 땅에 이르라. 거기서 먹을 것을 얻으리라”

8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를 데리고 검은 흙의 땅으로 내려가 본즉 거기 무르익은 밀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먹을 무화과가 있더라. 아담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9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밀을 취하여 떡을 만들어 네 몸에 영양을 공급하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곡식을 빻아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10 아담은 그 모든 일을 성취한 다음에, 마침내 그는 매우 기진해지고 지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밀이 사람이 쓸 떡이 되기까지 하는 일에 대하여 그가 배운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67장

"그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검은 진흙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밀에 가까이 가매 그들이 다 익어 거두어 들일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추수할 낫이 없었으므로 띠를 졸라 매고 다 될 때까지 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2 그들은 그것으로 곡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위와 목마름으로 기진하여 그늘진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산들바람이 그들에게 잠을 청하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군대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밀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려 함이라. 보라 그들이 와서 곡식단을 쌓았으나 수고로 기진하여 이제 자고 있으니 자, 우리가 이 곡식 더미에 불을 붙이고 불사르고 그들 곁에 있는 저 물병을 가져다가 비워 그들이 마실 것을 찾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을 죽이자.

4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동굴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길에서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가 저들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저들을 멸하자"

5 이에 사탄과 그의 군대가 밀에 불을 던지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6 아담과 하와가 불꽃의 열기 속에서 잠에서 깨어 보니 밀이 타는 것과 그들 곁에 물 양동이가 쏟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7 그때 그들은 울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8 그들이 있는 산 아래로부터 올라갈 때에 사탄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들의 형체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9 이에 사탄이 아담에게 이르되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주리고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사탄이 밀을 태운 것 같으니라" 아담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아"

10 사탄이 또 아담에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니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나은 다른 밭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 너머에는 좋은 샘물이 있고 많은 나무가 있어 거기에 머물며 사탄이 멸망시킨 것보다 더 나은 목적으로 곡식 밭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1 아담은 그가 진실되고 그와 이야기하는 그들이 천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12.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팔 일 동안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여 두 사람이 주리고 목마르고 기진하여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질 때까지 그런 다음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도망하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68장

사탄이 주인일 때 얼마나 파멸과 환난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배의 관습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사탄에게서 온 일과 그들을 멸망시키신 일을 살펴보셨습니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아담과 하와를 죽음의 상태에서 일으키셨습니다.

3 아담이 살아나자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곡식을 불사르사 우리에게서 취하시고 물동이를 비우셨으며 곡식 밭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만일 이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 영혼을 거두시되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4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밀을 태우지 아니하였고 물을 양동이에서 쏟지 아니하였고 나의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미혹케 하지 아니하였노라.

5 "그러나 그것을 행한 자는 네 주인 사탄이라. 네가 복종한 그 자니라. 그 동안 내 명령은 폐기되었도다. 그가 곡식을 불사르고 물을 붓고 그릇 인도한 자니라. 그가 너희에게 한 모든 약속은 진실로 거짓되고 속임수이며 거짓에 불과하니라.

6 "그러나 오 아담아, 이제 내가 네게 행한 나의 선한 일들을 인정하리라"

7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받쳐서 이전과 같이 물이 가득 찬 양동이가 있는 한 밀밭으로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8 거기서 그들은 나무를 보았고 그 위에서 단단한 만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9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주로 단언하시면서 다시는 와서 곡식 밭을 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0 아담과 하와가 곡식을 취하여 그것을 제물로 드려 그들의 처음 제물인 피를 드린 곳인 산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11 그들이 처음에 지은 제단 위에 이 봉헌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기도하여 주께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찬송이 이 제물과 같이 주께 올랐고 우리의 순결함이 유향과 같이 올랐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자비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마옵소서"

12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제물을 만들어 내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땅에 내려올 때에 그것을 내 살로 삼고 그것을 정당하게 먹는 자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위해 제단 위에서 계속 드려지게 하리라”

13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제물 위에 밝은 불을 보내어 광명과 은혜와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제물 위에 내려왔습니다.

14 그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여 천사가 숟가락같이 생긴 불 집게를 가져다가 제물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15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16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환난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규례가 있게 하라. 그러나 너희의 구원과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약정한 날이 차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자비와 동정으로, 네가 방금 내 이름을 위해 바친 제물로 인해 너를 내 동산으로 다시 데려왔을 것이다"

17 아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기뻐하였습니다. 그와 하와는 그들이 절하는 제단 앞에서 경배한 후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18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온 때로부터 팔십 일 후 열두째 날이 끝날 때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19 그들은 밤새도록 서서 아침까지 기도하였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20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납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와에게 이르되 “매주 세 번씩, 넷째 날인 수요일과 준비일 금요일과 안식일 일요일에 우리의 평생 동안 이와 같이 하자"

21 그들이 이 말을 서로 의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서로 결의한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22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담아 내가 육신이 되었을 때에 고난이 내게 임할 날을 네가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넷째 수요일이요 예비일인 금요일임이니라.

23 “첫째 날에 대하여는, 내가 그 중에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을 일으켰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이 날에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창조하고 나를 믿는 자들을 일으켜 높이리로다. 오 아담아, 너의 평생에 이 제물을 바치라"

24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25 그리고 아담은 일곱 이레가 끝날 때까지 매주 세 번씩 이 제물을 계속 드렸습니다. 첫째 날 곧 오십 일에 아담이 하던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와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69장

아담이 제단 위의 제물에 대해 기도하는 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열두 번째 나타남. 그때 사탄이 아담을 쳤다.

그런 다음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은 아담과 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힌 그의 제물을 시기하여 서둘러 날카로운 철석 중에서도 날카로운 돌을 취하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 옆에 가서 섰습니다.

2 아담은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 이에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날카로운 쇠돌로 급히 아담의 오른편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흐른즉 아담이 시체 같이 제단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도망쳤습니다.

4 이에 하와가 와서 아담을 데려다가 제단 아래 두니 그녀는 그곳에 머물며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가 그의 제물 위로 흘렀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제물을 충족시켜라. 아담아, 이는 참으로 가치가 있고 부족함이 없느니라”

6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이르시되 “땅에서 내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니 내가 찔림을 받을 때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려 내 몸에 흐르리니 이는 참 제물이라. 완전한 제물로 제단에 드려지리라"

7 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사 제사를 마치게 하시고 그가 다 마치매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가 그에게 보이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습니다.

8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 이레가 끝나는 날 하루 만에 아담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날은 오십 일째 되는 날입니다.

9 아담과 하와가 산에서 돌아와서 하던 대로 보물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나온 지 일백사십일 만에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10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둘 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들이 나가서 동굴 서쪽으로 내려가서 곡식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습관처럼 나무 그늘 아래 쉬었습니다.

11 그러나 많은 짐승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혼인을 통해 아담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사탄이 그의 사악함으로 행했습니다.

70장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열세 번째 발현하여 하와와의 혼인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전쟁을 일으키다.

그 후에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이 천사의 형상을 취하고 다른 두 명도 함께 천사의 형상을 취하였는데 아담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세 천사와 같았습니다.

2 그들이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보다 앞서 지나가서 간사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문안하였습니다.

3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달콤한 말을 들으니 아담이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하와에게로 인도하니 그들이 다 함께 머물렀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다 준 바로 그 천사들인 줄로 생각하여 기뻐하였습니다.

4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아담에게 나아왔을 때에 좋은 증표를 가지고 그에게 이르러 평강과 희락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들이 기뻐할 다른 증표를 주려고 두 번째로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5 그 때에 가장 키가 큰 사탄이 이르되 “아담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사 무엇을 말하게 하셨느니라”

6 아담이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냐?” 이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간단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가 우리에게 듣고 행하겠느냐? 만일 네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7 그리고 사탄이 다시 아담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떨림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 네가 우리를 알지 못하느냐?"

8 아담이 이르되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9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금을 가져다가 동굴로 가지고 간 천사라. 이 사람은 유향을 가져온 자요. 저 셋째는 네가 산꼭대기 위에 있을 때에 몰약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너를 동굴로 데려간 자니라”

10 "그러나 너희를 동굴로 받들어 준 다른 천사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족하다 하셨음이라"

11 아담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믿으며 이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라”

12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맹세하라 그리고 네가 그 것을 받겠다고 내게 약속하라”

13 아담이 이르되 “나는 맹세하고 약속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14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넣으라”

15 그때 아담이 그의 손을 내밀어 사탄의 손에 넣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말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성적이시며 말씀하시며 허공에서 하늘을 일으키시며 물 위에 땅을 세우시며 네 개의 원소로 땅의 흙으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되시니라. 내가 내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며 내 말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16 아담이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17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동산에서 나온 지 오래되어 사악함도 악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를 데려다가 그녀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서 이는 너를 위로하며 환난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요. 네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라"

71장

아담은 하와와의 혼인으로 곤경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이 말을 듣고 그의 맹세와 그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내 살과 뼈로 간음하여 스스로 범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고 나를 지면에서 지워버리려 하시나이까?

2 “내가 처음에 그 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 그가 나를 동산에서 쫓아내어 이 낯선 땅으로 보내셨고 나의 밝은 성품을 빼앗으시고 나를 죽게 하셨으니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면 그가 내 생명을 땅에서 끊으실 것이요. 그가 나를 지옥에 던져 거기에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시리라.

3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한 말을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요, 그가 너희를 보내시지도 아니하셨도다. 너희는 마귀니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내게 왔도다.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아!"

4 그러자 그 마귀들은 아담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와가 일어나서 보물의 동굴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5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것을 네가 보았거든, 고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 손을 사탄의 손에 넣었느니라” 그런 다음 하와는 아담이 말한 대로 잠잠했습니다.

6 아담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을 펴고 그의 행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며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서서 사십 주야를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

으로 땅에 쓰러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7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니 아담이 그를 누운 곳에서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또 어찌하여 사탄과 언약하였느냐?”

8 아담이 울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고 부지중에 이렇게 한 것이나이다”

9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을 조심하라”

10 그리고 그분은 아담에게서 그분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11 아담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를 데리고, 그들이 그들의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려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12 그러나 그 날부터 아담은 하와와 혼인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투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리할까봐 두려웠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실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13 아담과 하와가 물가로 가서 사람들이 즐거이 하는 것과 같이 둑에 앉았습니다.

14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괴할려고 합니다.

72장

아담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탄과 그의 군대에서 온 열 명이 은혜를 위해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은혜롭게 스스로를 처녀로 변모시켰습니다.

2 그들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강에서 올라오며 서로 말하되 “오라 우리가 땅에 속한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보리라.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얼굴과 얼마나 다른지" 그런 다음 그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이상히 여겨 가로되 “그러면 우리 아래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는 다른 세계가 있느냐?”

4 그 처녀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되 “참으로 우리는 많은 피조물이라”

5 아담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번성하느냐?”

6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혼인한 남편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자녀를 낳고 장성하여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자녀를 낳은즉 우리가 번성하노라. 그러면 오 아담아, 네가 우리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남편과 자식을 보이리라"

7 그들이 강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남자와 아이들을 남편과 자녀들이라 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로 가니 그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8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보고 말문이 막힌 채 서서 그들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9 그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남편과 자녀를 보고,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혼인하듯이 네가 하와와 혼인하면 너희도 우리와 같은 자녀를 낳으리라” 하고 이것은 아담을 속이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10 사탄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먹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가 그의 몸에서 나오는 날까지 죽음과 재앙과 시험을 그에게 작정하셨을 뿐이라.

11 “그런즉 내가 만일 그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와와 혼인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리라”

12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이 발현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그를 죽이고 그를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3 그 사이에 죄의 불이 아담에게 임하고 그가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그가 사탄의 이 충고를 따를 경우 하나님이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자제했습니다.

14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사탄과 그의 군대가 아담과 하와 앞에서 강으로 내려가니 그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리했습니다.

15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저녁 시간 쯔음 습관대로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16 그리고 그들은 둘 다 그날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담은 그의 하와와의 혼인에 관한 마음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모른 채 계속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까지 그렇게 했다.

17 빛이 일어나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들이 우리에게 금을 가져다 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 물어보자”

18 하와가 이르되 “어떤 일인가요? 아담”

19 그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청하여 너와의 혼인에 관하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의 명령 없이는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너와 나를 멸하시리라. 저 마귀들이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 준 생각으로 내 마음을 불사르게 하였느니라"

20 하와가 아담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우리 동굴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략이 선한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자”

21 아담이 일어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범죄한 줄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범죄한즉 그 때부터 우리의 성품이 쇠하여지고 우리 몸이 짐승이 되어 동물의 욕망을 가진 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나이다.

22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명령하사 주의 명령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폐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압도당하고 사탄의 꾀를 따르리니 주께서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리이다.

23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우리로 이 육욕을 끊게 하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하와를 나로부터 끊으시고 나도 그녀로부터 끊으셔서 우리를 서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소서.

24 “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서로 갈라 놓으실 때에 마귀가 그의 발현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의 마음을 파하며 서로에 대하여 생각을 더럽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각자가 서로를 향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73장

아담과 하와의 약혼.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되며 그가 당신의 명령을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아담의 말을 보시고 사탄의 조언을 존중하셨습니다.

2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에 관하여 생각한 것과 그의 면전에서 드린 기도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동산에서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의를 하였더라면..!"

3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을 가져온 천사와 유향을 가져온 천사와 몰약을 가져온 천사를 보내어 아담에게 하와와의 혼인에 관하여 알렸습니다.

4 그러고 그 천사들이 말하되 "그 금을 가져다가 하와에게 혼인 선물로 주고 그와 약혼하고 그녀에게 얼마의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어서 너와 그녀가 한 몸이 되라"

5 아담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금을 가져다가 하와의 옷에 넣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그녀와 약혼했습니다.

6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사십 주야를 일어나 기도하게 하고 그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번성하여 지면에 충만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7 그 때에 아담과 하와가 천사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8 아담과 하와가 사십 일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합하였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떠난 때부터 하와와 혼인할 때까지 이백이십삼 일 곧 칠개월 십삼 일이었습니다.

9 이와 같이 아담에 대한 사탄의 전쟁은 패배하였습니다.

74장

가인과 룰루와의 탄생. 그들이 그 이름을 받은 이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육체를 위해 일하면서 땅에 거했습니다. 하와가 아이를 임신한 아홉 달이 끝나고 해산해야 할 때가 가까울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2 그녀가 아담에게 이르되 “이 동굴은 우리가 동산을 떠난 이래로 그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여졌

으므로 정결한 곳이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도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여기서 낳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 던진 은신처된 반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위에 차양처럼 펴져 동굴이 된 그 곳을 보수하자"

3 그런 다음 아담은 하와를 그 동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산해야 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담도 슬퍼했고 그의 마음도 그녀를 위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네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근심 중에 네 아이를 낳을 것이라”

4 아담이 하와가 처한 곤경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님 주의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굽어보사 그녀를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5 하나님이 그 여종 하와를 보시고 구원하사 그녀가 장자를 낳고 그와 함께 딸을 낳았습니다.

6 아담은 하와의 건지심과 하와가 그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담은 팔 일이 끝날 때까지 동굴에서 하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 딸의 이름을 룰루와라고 지었습니다.

7 가인의 뜻은 "미워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태에서 그들이 그것에서 나오기 전에 그의 누이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8 그러나 룰루와는 그녀의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9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의 누이가 사십 일이 되기를 기다렸더니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드릴 것이라”

10 하와가 이르되 “우리가 맏아들을 위하여 한 제물을 만들고 그 후에 딸을 위하여 한 제물을 드리자”

75장

그 가족은 보물의 동굴을 다시 방문합니다. 아벨과 아클레미아의 탄생.

그런 다음 아담이 제물을 준비하고 그와 하와가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드리고 그들이 처음에 지은 제단으로 가져갔습니다.

2 아담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3 하나님이 아담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빛을 보내사 제물 위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아들은 제물에 가까이 갔으나 하와와 딸은 제물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아담이 제단 위에서 내려오매 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딸이 팔십 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담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와와 아이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하던 대로 제물을 바쳤고, 주님께 그의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5 그리고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이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기뻐하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6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동굴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 동굴을 돌고 동산에서 가져온 증표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보물의 동굴에 갔습니다.

7 그리고 그들이 이 증표로 축복을 받은 후 자기들이 태어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8 그러나 하와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하와와 함께 그들이 처음 몸을 던졌던 물이 있는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은 몸을 씻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몸을 씻었고 하와도 자기 몸을 씻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 후였습니다.

9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강물에 몸을 씻은 후 매일 밤 보물의 동굴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10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이 젖을 빨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젖을 떼었을 때, 아담은 그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매주 세 번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11 젖먹이는 날이 차매 하와가 다시 잉태하여 날이 차매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벨, 딸의 이름을 아클리아라 하였습니다.

12 사십 일이 지나매 아담이 아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팔십 일이 지나매 아담이 딸을 위하여 또 다른 제사를 드려, 전에 가인과 그의 누이 룰루와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습니다.

13 그들을 데리고 보물의 동굴로 들어가 축복을 받고 다시 태어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을 낳은 후, 하와는 출산을 그쳤습니다.

76장

가인은 누이들 때문에 질투가 난다.

1 아이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키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이 완고하여 동생을 억눌렀습니다.

2 그리고 종종 그의 아버지는 제물을 바칠 때, 그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아벨은 마음이 온유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주 제물을 드리도록 부모를 독려했으며 그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4 그 때에 이 증표가 아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보물의 동굴에 들어가 금 막대와 유향과 몰약을 보고 그들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5 아담이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아버지가 그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느꼈습니다.

6 더우기 그의 아버지 아담이 그에게 하나님의 일과 동산의 일을 말한 후에, 그는 보물의 동굴에서 그날 밤 내내 아버지 뒤에 머물렀습니다.

7 그 날 밤 그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네가 자주 네 아버지를 감동시켜 헌금과 금식과 기도를 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죽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를 멸망시키리라"

8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탄을 그에게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식과 기도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줄이지 말라. 보라 주님께서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밤에 너에게 나타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너를 죽음으로 저주한 자라"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9 날이 새매 아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와 그가 본 환상을 고하였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 많이 슬퍼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위로했습니다.

10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가인에 관해서는 사탄이 밤에 그에게 와서 자신을 나타내어 그에게 이

르되 “아담과 하와가 네 형제 아벨을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네 아름다운 누이와 혼인시키고 싶어하니 이는 그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그의 못생긴 자매와 혼인시키기를 원한다.

11 “그러므로 이제 내가 권하노니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네 형제를 죽이라. 그리하면 네 자매는 남겨지고 그의 자매는 쫓겨나리라”

12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를 죽이려고 많은 시간을 찾던 가인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77장

십오 세 가인과 십이 세 아벨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형이 동생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힘써 가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네가 뿌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네 악과 죄를 사하시리라"

2 또 아벨에게 이르되 “너는 네 씨를 가져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네 악과 죄를 사하시리라”

3 아벨이 그 아비의 말을 듣고 그 뿌린 것을 거두어 좋은 제물을 만들고 그 아비 아담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어떻게 바칠지 내게 보여주세요”

4 아담과 하와가 그와 함께 가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리고나서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5 그 때에 하나님이 아벨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보다 아벨의 선한 마음과 순결한 몸으로 인하여 아벨에 대해서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간교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6 제단에서 내려와 자기들이 사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물을 바친 것을 기뻐하여 그의 아버지 아담의 본을 따라 일주일에 세 번씩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7 그러나 가인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많은 분노 후에 그는 그의 제물을 한 번 바쳤습니다. 그가 제물을 바쳤을 때 그의 눈은 그가 드린 제물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는 그의 양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제물로 가져갔고, 그의 눈은 다시 그것에 있었습니다.

8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살인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9 그들 모두는 가인이 열다섯 살, 아벨이 열두 살 때까지 하와가 출산한 동굴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78장

질투는 가인을 이깁니다. 그는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첫 번째 살인이 계획된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보라 자녀들이 장성하였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내를 찾을 생각을 하여야 할지니라"

2 하와가 대답하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이까?"

3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벨의 누이를 가인과, 가인의 누이를 아벨과 함께 하도록 하자"

4 하와가 아담에게 이르되 "가인은 마음이 완악하므로 내가 싫어하노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드릴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게 두자"

5 그리고 아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6 그 사이에 사탄이 들 사람의 모습으로 가인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아담과 하와가 너희 두 사람의 혼인을 의논하고 아벨의 누이를 너와 혼인시키기로 하고 너의 누이는 아벨에게 하기로 했노라.

7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면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내 충고를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네 혼인날에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으로 많이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내 친척들도 참석할 것이라"

8 가인이 기뻐하며 이르되 "네 친척이 어디 있느냐?"

9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친족이 북방에 있는 동산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전에 네 아버지 아담을 데려오려 하였으나 그가 나의 제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10 "그러나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네 혼인 후에 내게로 오면, 네게 있는 불행에서 쉬게 될 것

이요, 너는 안식하고 네 아버지 아담보다 낫게 되리라"

11 사탄의 이 말에 가인이 귀를 열고 그의 말에 의지하였습니다.

12 그가 들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어미 하와에게로 가서 그녀를 때리고 저주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누이를 데려다가 아벨과 혼인하게 하려느냐? 내가 죽었느냐?"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진정시키고 그를 전에 있던 들로 보냈습니다.

14 아담이 와서 그녀는 가인이 한 일을 그에게 고하였습니다.

15 그러나 아담은 근심하며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6 이튿날 아담이 그 아들 가인에게 이르되 "네 양중에 젊고 좋은 것을 취하여 네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네 형제에게 말하여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라 할 것이다"

17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아버지 아담의 말을 듣고 그 제물을 취하여 산 위 제단 곁에서 드렸습니다.

18 그러나 가인은 그의 형제에게 거만하게 행하며 그를 제단에서 내쫓고 그의 제물을 제단 위에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과 교활함과 사기로 가득 찬 자신의 것을 바쳤습니다.

19 그러나 아벨은 가까이에 있는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겸손하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20 그 때에 가인은 자기가 제물을 드린 제단 곁에 섰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받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성한 불이 그의 제물을 사르려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21 그러나 그는 언짢은 기분과 분노로 제단 앞에 서서 그의 형제 아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2 그리고 아벨은 그의 제물을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성한 불이 내려와 그의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23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므로 그 제물에 참예한 자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가 그 제물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음입니다. 그들이 아벨을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24 그러나 가인은 자기 형제의 제사 중에 벌어진 모든 일을 보고 분개하였습니다.

25 주가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26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안색이 슬프냐? 내가 네 제물을 받도록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제물을 받으리라.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네 자신을 원망하라"

27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꾸중하심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가증히 여기셨음이라.

28 가인이 제단에서 내려와 안색이 변하고 비참한 얼굴로 그의 아비 어미에게 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29 그러나 아벨은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그 부모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30 아벨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가인이 나를 제단에서 밀어내되 내가 그 위에 제물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31 아담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 이는 그가 처음에 쌓고 자기 제물을 그 위에 쌓은 단이었기 때문입니다.

32 가인이 심히 근심하고 노하여 들로 가니 사탄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네가 그를 제단에서 내쫓은 것으로 인하여 네 아우 아벨이 그들에게로 피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얼굴에 입맞추고 너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33 가인은 사탄의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찼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 누워 기다렸다가 그를 동굴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34 "오 아벨아, 그 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는 아름답고 만족을 주는 나무들이 있어 보기에 매혹적이라! 그러나 아벨아, 너는 단 하루도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들판에 가본 적이 없구나.

35 "오, 나의 아벨아, 오늘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들로 가기를 많이 소원하였노라. 너는 의로우므로 우리의 들과 가축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노라! 아벨아,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멀어졌도다"

36 이에 아벨은 형 가인과 함께 들에 가기를 허락하였습니다.

37 그러나 가인이 나가기 전에 아벨에게 이르되 "들짐승을 위하여 내가 지팡이를 가져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38 그 때에 아벨은 순전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가인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39 그리고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 그들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그에게 말을 하고 그를 위로하여 모든 것을 잊게 하였습니다.

79장

사악한 계획은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일곱 가지 형벌.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들은 양 한 마리가 없는 외딴 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때에 아벨이 가인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우리가 걷기에 피곤하노니 나무와 실과와 푸른 초목과 양과 네가 나에게 말한 아무 것도 보지 못함이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라고 말한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2 가인이 그에게 이르되 "이리 오라. 이제 네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리라. 그러나 내가 올라갈 때까지 내 앞에서 가라"

3 아벨은 앞으로 갔으나 가인은 뒤에 있었습니다.

4 그리고 아벨은 간사함 없이 그의 순진함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가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5 그 때에 가인이 그에게 이르러 그의 조금 뒤에 걸으면서 그의 말을 하며 그를 위로하되 그리고 서둘러 지팡이로 그를 때리고, 그가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 때렸습니다.

6 아벨이 땅에 엎드러져 그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보고 가인에게 이르되 "내 형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같은 젖을 빨았으니 나를 치지 마소서.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세상에 나오게 한 그 모태로 말미암아, 저 지팡이로 나를 죽기까지 치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려거든 이 큰 돌 하나를 취하여 나를 완전히 죽이소서"

7 이에 마음이 완악하고 잔혹한 살인자 가인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형제의 머리를 쳐서 뇌가 흘러나왔으며 그의 앞에서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8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9 그러나 의로운 아벨의 피가 땅 위에 떨어질 때에 땅이 그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떨었고 가인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0 아벨의 피가 자기를 죽인 자의 원수를 갚아 달라고 신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1 가인이 곧 자기 형제를 묻을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임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그는 자기 형제를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던지고 흙 안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땅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단번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13 가인이 다시 땅을 파고 그 형제를 그 속에 숨겼지만 그러나 다시 땅이 그를 내 던졌습니다. 땅이 이렇게 세 번이나 아벨의 몸을 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4 진흙 땅이 그를 처음으로 내 던졌으니 이는 그가 첫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두 번째로 내 던지며 그를 받지 않았으니 그는 의롭고 선하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를 세 번째 던지고 받지 아니함은 그를 대항하는 증거를 가인 앞에 남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15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형제에 관하여 그에게 임하기까지 땅이 가인을 조롱하였습니다.

16 그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벨의 죽음을 크게 불쾌해 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우뢰를 발하고 번개가 그에 앞서 갔고 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가인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7 가인이 교만한 마음과 퉁명스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8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 아벨의 피를 먹은 땅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는 떨며 떨리니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며, 누구든지 너를 발견하는 자는 너를 죽여야 하리라”

19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니, 가인이 하나님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죽이리니 나는 지면에서 도말되리이다”

20 이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를 찾는 누구든지 너를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일곱 벌을 내리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21 만일 가인이 그 때에 회개하여 "오 하나님이여, 나의 죄와 내 형제를 죽인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22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의 피를 마신 땅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신 말씀도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비록 아벨을 죽이고 죄를 범한 것은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23 살인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자신의 생각을 아무도 모르게 관리하셔서 가인에게서 저주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24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에 그는 "모르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창조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떨고 떨지어다”

25 이에 가인이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적으로 그 형제를 죽인 자로서 만물 앞에서 그를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떨림과 두려움을 그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처음에 있던 평안을 보고, 마지막에 그가 견디었던 떨림과 두려운 것도 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처음에 누리던 평안을 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6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일곱 벌을 내리리라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칼로 가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요, 그는 자기 죄에서 건져질 때까지 엄격한 규율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어서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27 그리고 일곱 형벌은 하나님이 그의 형제를 죽인 가인을 기다리신 일곱 대 동안입니다.

28 그러나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인 후로 아무 곳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떨

고 두렵고 피로 더러워진 채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권끝-

The second book of Adam and Eve

아담과 하와 2권

1장

슬픔에 잠긴 가족. 가인은 룰루와와 혼인하고 떠납니다.

룰루와가 가인의 말을 듣고 울며 자기 부모에게 가서 어떻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를 말하였습니다.

2 그들이 다 크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찰싹 때리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며 옷을 찢고 나가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 갔습니다.

3 그들이 그가 땅에 죽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주위에 짐승들도 보았습니다. 아벨 한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또 울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순결함 때문에 달콤한 향신료 냄새가 났습니다.

4 그리고 아담이 그를 안고, 그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물의 동굴로 가서 그를 뉘어 놓고 향품과 몰약으로 쌌습니다.

5 아담과 하와는 백사십 일 동안 큰 슬픔으로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벨은 열다섯 살 반, 가인은 열일곱 살 반이었습니다.

6 가인은 그 형제를 위한 애도가 끝났을 때 부모의 허락 없이 그의 누이 룰루와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마음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 그는 동산에서 먼 산의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를 죽인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8 그리고 그 곳에는 많은 과일 나무와 숲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그에게 자녀를 낳아 그 자리를 채울 때까지 차례로 점차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9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장례를 치른 후 칠 년 동안 동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와는 잉태했습니다. 그녀가 잉태했을 때 아담이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아름다운 아이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자. 그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아벨의 누이와 혼인할 수 있는 아이가 되리라"

10 이에 그들이 제물을 준비하여 제단에 올라가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자손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11 하나님이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딸은 경배하고 보물의 동굴에 내려가 등불을 넣어 밤낮으로 아벨의 시체 앞에서 타도록 하였습니다.

12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해산할 때가 오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르되 “나는 바위 동굴에 가서 거기에서 낳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네 딸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나는 이 보물의 동굴에 내 아들 아벨의 시체 앞에 유하리라”

14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고 그녀와 그녀의 딸은 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보물의 동굴에 홀로 남았습니다.

2장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용모와 외모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그의 아버지 아담의 아름다움과 같았지만 더 아름다웠습니다.

2 하와는 그를 보고 위로를 받고 동굴에서 팔 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딸을 아담에게 보내어 그녀에게 와서 아이를 보고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담이 돌아올 때까지 오라비의 시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3 아담이 와서 그 아이의 용모와 아름다움과 온전한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벨에 대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나를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힘과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4 아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후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5 그러나 하와는 사십 일이 차기까지 자기 동굴에 머물다가 아담에게 갈 때에 아기와 딸을 데리고 그에게 갔습니다.

6 그들이 물이 있는 강에 이르러 거기에서 아담과 그의 딸이 아벨을 위하여 슬퍼하므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기는 정결을 위해 씻었습니다.

7 그들이 돌아와서 제물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아기를 위하여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아들 셋에게 축복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8 아담은 평생에 그의 아내 하와를 다시 알지 못하였고 그들에게서 더 이상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인, 룰루와, 아벨, 아클리아, 셋의 다섯 명뿐입니다.

9 그러나 셋은 키와 힘이 자라나며 그리고 열렬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 그가 아직 어리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젊음을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 보내십시오." (12절) 사탄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15절).

우리 조상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떨어진 날로부터 칠 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그가 그렇게 그녀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그녀와 함께 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2 아담이 일어나 보물의 동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곳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기도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동굴로 내려왔습니다.

3 저녁이 되자 그는 사탄이 자기를 이기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동굴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삼십구 일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4 모든 선을 미워하는 사탄이 아담이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의 형체로 그에게 나타나서 사십일 째 되는 날 밤에 그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5 “아담아, 네가 이 동굴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너에게서 큰 평안을 얻었고, 네 기도가 우리에게 이르렀고, 너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노라.

6 "그러나 오 아담아, 이제 네가 동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니 우리가 그 일에 의문을 가졌고 네가 하와와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네가 이 동굴의 지붕에 있을 때에 당신의 기도가 쏟아지고 당신의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구나.

7 “네가 동굴에 있을 때에는 네 기도가 불이 모이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임하매 네가 안식을 얻었느니라.

8 “그 때에 내가 또한 네 자손 중에서 끊어진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네 아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근심이 크니 이는 그가 의인임이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근심하노라.

9 “그러나 나는 네가 아들 셋을 낳은 것을 기뻐하였노니, 하지만 잠시 후에 하와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자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를 네 옆구리에서 끌어내실 때에 나를 또한 그녀와 함께 나가게 하셨으나, 그분은 그녀를 너와 함께 두어 그녀를 일으키셨고 나를 낮추셨느니라.

10 “내 누이가 너와 함께 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내게 약속하사 가라사대 ‘근심하지 말라, 아담이 보물의 동굴 지붕에 올라가 그 아내 하와와 헤어질 때에, 내가 그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와 혼인하여 하와가 그에게 다섯을 낳은 것 같이 그에게 다섯 자녀를 낳으라'

11 “이제 보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가 나를 혼인을 위해서 보내셨으니, 네가 만일 나와 혼인하면 내가 하와의 자손보다 아름답고 더 나은 아이들을 낳으리라.

12 “그런즉 또 네가 아직 청년이라. 청년을 이 세상에서 근심 중에 끝내지 말고 오직 환희와 즐거움으로 청년의 날을 보내라. 네 날이 적고 네 시련이 큼이라. 강건하여 이 세상에서 너의 날을 기뻐하면서 끝내라. 나는 네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너는 이런 식으로 두려움 없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

13 “그런즉 일어나 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하고 아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14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그녀에게 지는 것을 보고 그를 그녀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 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보내어 가라사대 “아담아 그 형상은 신격과 위엄을 약속한 그 자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요, 한 번은 여자의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냈고, 다른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신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단지 너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노라.

16 “그런즉 아담아 네 마음을 알고, 그의 손에서 여러 번 너를 구원하였노니, 이는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과 내가 너의 잘됨을 원하고 네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4장

아담은 마귀의 본색을 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탄에게 아담에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명백히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 아담은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보고 떨었습니다.

3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마귀와 그의 흉한 모양을 보라. 너를 광명에서 어둠으로, 평안과 안식에서 수고와 고통으로 떨어지게 한 자가 바로 이 자인 줄 알라.

4 “그리고 오 아담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를 보라! 하나님이 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자의 형태를 취하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분은 제압될 수 있느냐?

5 “그런즉 오 아담아, 보라 그가 네 앞에서, 공중에서 결박되어 달아날 수 없느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살피고 그를 조심하라"

6 하나님이 아담 앞에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가 아담을 강건케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물의 동굴에 내려가서 하와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네 안의 모든 짐승의 정욕을 가라앉힐 것이라”

7 그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듯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8 아담이 그를 구원함과 그의 정욕을 쫃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굴 위에서 내려와 이전과 같이 하와와 함께 거했습니다.

9 이것으로 그가 하와와 분리된 사십 일 간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5장

마귀는 셋이 자신의 생각을 즐길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셋은 일곱 살 때 선악을 알고 금식과 기도를 꾸준히 했으며 그의 모든 밤을 새워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2 그는 또한 매일 제물을 바칠 때 그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금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의 가장 순수한 특성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제물을 올렸습니다.

3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그의 순수로 인해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 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부모의 뜻을 행했습니다.

4 그 후에 그가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올 때에 사탄이 빛으로 광명한 아름다운 천사의 형체로 그에게 나타났으니 손에 빛의 지팡이를 들고 빛의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5 그가 셋에게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하고 공손한 말로 그를 속이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셋아 네가 어찌하여 이 산에 거하느냐. 험하고 돌과 모래가 많고 좋은 열매가 없는 나무의 산이라. 거처도 없고 성읍도 없는 광야와 거할 좋은 곳이 없으되 오직 더위와 피곤과 괴로움뿐이로다"

6 그가 또 말하되 "우리는 아름다운 곳,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노라. 우리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고 우리의 상태는 가장 좋으며, 우리 여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아름답도다. 셋아, 나는 너를 그 중 하나와 혼인시키리라. 내가 보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땅에는 너에게 합당한 좋은 여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이 세상에 사는 자도 오직 다섯 영혼뿐이라.

7 "그러나 우리 세상에는 남자들과 처녀들이 매우 많으며 모두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노라. 그러므로 나는 네가 여기를 떠나 나의 친척들을 보고 네가 좋아하는 누구와 혼인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8 "너는 내 곁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영화와 빛이 충만할 것이라.

9 "너는 우리 세상에 남아 이 세상과 그 것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쉬고 다시는 기진맥진하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결코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자비를 구하지 아니 할 것이라. 이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욕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10 "또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딸들 중 하나와 혼인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요. 짐승의 정욕으로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라.

11 "우리 세상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되 우리는 다 신이라. 우리가 다 빛에 속하여 하늘에 속한 자요. 능력 있고 강하고 영화로운 자니라"

6장

셋의 양심이 그를 돕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갑니다.

셋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사탄의 간사한 말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에게 말하되 "네가 말하기를 이 외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피조물이 있다고 하였느냐?"

2 사탄이 이르되 “참으로 보라. 네가 내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여전히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네 귀에서 찬양할 것이라”

3 셋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말은 나를 놀랍게 하였고 당신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도 그랬노라”

4 “그러나 나는 오늘 함께 갈 수 없노라. 내가 내 아버지 아담과 내 어머니 하와에게 가서 당신이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이 나에게 함께 가도록 허락하면 내가 갈 것이라"

5 또 셋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부모의 허락없이 하기를 두려워 하노니 내 형제 가인과 내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 같이 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보라, 당신은 이 장소를 아나니 와서 내일 여기서 나를 만나라"

6 사탄이 이 말을 듣고 셋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내가 말한 것을 네 아버지 아담에게 고하면 그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7 “그러나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한 것을 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우리의 세계로 가서, 그곳에서 너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기에서 즐기며 내 자녀들과 함께 오늘 잔치를 벌이며 그들을 바라보고 환희에 가득 차서 더욱 기뻐하라. 그러면 나는 내일 이 장소로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라.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노라"

8 셋이 대답하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이 내게 달려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서 하루를 숨는다면 그들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죄를 물으시리라.

9 “내가 내 제물을 바치러 여기에 온 줄을 그들이 알지 아니하면, 그들이 한 시간도 나와 떨어져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말아야 하리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빨리 돌아 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가장 친절하게 대하노라"

10 이에 사탄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날 밤 그들에게서 몸을 숨기고 날이 샌 다음 그들에

게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11 그러나 셋은 그가 계속 말하는 것과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펴서 하나님께 그로부터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2 이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사 자기에게서 도망하는 사탄을 저주하였습니다.

13 그러나 셋은 제단에 올라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신성한 불이 그것을 사르리니 사탄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를 데려가지 못하리라"

14 셋이 제단에서 내려와 그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의 부모에게 갔으며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그가 잠시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15 그리고 그는 천사의 형체로 나타난 사탄으로 인하여 그에게 닥친 일들을 부모에게 말하였습니다.

16 아담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얼굴에 입맞추고 그 천사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사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은 셋을 데리고 보물의 동굴로 가서 그곳에서 기뻐했습니다.

17 그러나 그 날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제물이나 다른 무엇을 위하든지 간에,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18 이 표적은 셋이 아홉 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7장

셋은 아클리아와 혼인합니다. 아담은 손자와 증손자를 보기 위해 산다.

우리 아버지 아담은 셋이 완전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혼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수가 그에게 다시 나타나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2 아담이 그의 아들 셋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네 누이 아킬리아, 아벨의 누이와 혼인하여 그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 충만할 자녀를 낳기를 원하노라.

3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원수가 너를 이길까 두려워 네가 혼인하기를 원하노라"

4 그러나 셋은 혼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아담은 그를 아클리아와 혼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6 그가 이십 세에 아들을 낳으매 그가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7 이에 에노스는 장성하여 혼인하여 가이난을 낳았다.

8 가이난도 자라서 혼인하여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9 이들 아버지들은 아담의 생애에 태어나 보물의 동굴에 살았습니다.

10 아담의 연수는 구백삼십 년이요, 마할랄렐이 일백 세일때라. 그러나 마할랄렐은 장성하여 우리 조상 아담의 끝 날이 가까울 때까지 금식과 기도와 수고를 사랑하였습니다.

8장

아담의 놀라운 마지막 말. 그는 홍수를 예언합니다. 그는 그의 자손을 선하게 권면합니다. 그는 삶의 어떤 신비를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자기의 끝이 가까움을 보고 그의 아들 셋을 부르니 그가 보물의 동굴에 와서 아담이 셋에게 이르러 이르되:--

2 “셋아, 내 아들아 네 자녀와 네 자녀의 자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내가 죽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리라”

3 셋이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서 이 말을 듣고, 떠나가서, 눈물을 홍수같이 그의 얼굴에 흘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의 자손들을 모아 그의 아버지 아담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4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은 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헤어져야만 해서 울었습니다.

5 그들이 그가 우는 것을 보고 다 함께 울며 그들의 얼굴을 엎드려 가로되 “우리 아버지여 어찌 하여 우리를 떠나려 하시나이까? 땅이 어찌 당신을 받으며 우리 눈에서 가리겠나이까? 이와 같

은 말로 많이 한탄하였습니다.

6 우리 조상 아담이 그들 모두에게 축복하고, 그 후에 셋에게 이르되:--

7 "오 셋아, 내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이 슬픔과 곤고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겪는 시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말로 명령하노니 죄로부터 순결하고 순전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사탄의 말이나 그가 너희에게 그 자신을 보이는 발현에도 조심하라.

8 "그러나 오늘 내가 네게 주는 명령을 지키라. 그런 다음 같은 것을 네 아들 에노스에게 주어라. 그리고 에노스가 그것을 그의 아들 가이난에게 주도록 하라. 가이난은 그의 아들 마할랄렐에게, 이 계명이 너희 모든 자녀에게 굳게 지켜지도록 하라.

9 "내 아들아 셋아, 내가 죽으면 너는 내 몸을 가져다가 몰약과 유향과 계피로 감싼 다음 하나님이 동산에서 나온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증표가 있는 이 보물의 동굴에 나를 놓으라.

10 "내 아들아, 이후에 홍수가 나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여덟 영혼만 남게 될 것이다.

11 "내 아들아, 그 때에 네 자녀 중에서 남을 자가 내 몸을 그들과 함께 이 동굴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요. 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는 그들 중 장로가 내 몸을 방주에 뉘이라고 자기 자녀에게 명할 것이라. 홍수가 그쳐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라.

12 "그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곧 그들이 내 몸을 가져다가 땅의 한가운데에 두리라.

13 "내 몸을 둘 곳은 땅의 한가운데라. 하나님이 거기서 오사 우리 온 족속을 구원하시리라.

14 "내 아들아 셋아, 이제 네 백성의 머리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돌보고 지키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하고 사탄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들이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함을 그들로 알게 하라.

15 "그런즉 네 자손과 네 자손의 자손을 가인의 자손 중에서 끊으라. 너희들이 그들과 섞이지 말며 말과 행위로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말라"

16 아담은 그의 축복이 셋과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자손의 자손에게 내리게 하였습니다.

17 그 아들 셋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로 돌이켜 이르되 "하나님이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금과

이 유향과 이 몰약을 보존하라. 다가올 후일에 홍수가 온 피조물을 압도할 것이나 방주에 들어갈 자들은 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 몸과 함께 가지고 갈 것이요. 또 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 몸과 함께 땅의 한가운데 두어야 하리라.

18 “그리고 오랜 후에 내 몸과 함께 금과 유향과 몰약이 발견된 성읍이 약탈되리라. 그러나 그것이 약탈될 때에 금과 유향과 몰약은 조심하여 보존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사람이 오실 때까지 그것들 중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왕들이 그것을 취하여 그에게 금을 드릴 때에 그가 왕이 되심을 증거할 것이며, 유향은 그 분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것이며, 그리고 몰약은 그분의 수난의 증표가 될 것이라.

19 “금은 또한 그 분이 사탄과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심의 증표요, 유향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보다 높임을 받으리라는 증표요, 몰약은 그가 쓴 쓸개를 마시고 사탄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을 느끼리라는 증표이라.

20 "그리고 이제 오 내 아들 셋아,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숨은 비밀들을 나타내었노라. 너와 네 백성을 위하여 내 명령을 지키라"

9장

아담의 죽음.

아담이 셋에게 명령을 마치자 그의 팔다리가 풀렸고 그의 손과 발에 모든 힘이 사라졌고 그의 입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의 혀는 말하기를 함께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2 그의 자녀들이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위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3 아담의 죽음은 땅에 살았던 구백삼십 년이 끝날 때 일어났습니다. 태양의 세수월령을 계산한 이후로 바르무데 열다섯 째 날 제 구 시였습니다.

4 이는 창조된 금요일이었으며 그날 그는 안식했습니다. 그가 죽은 시간은 그가 동산에서 나온 시간과 같았습니다.

5 이에 셋이 그를 잘 싸매고, 신성한 나무와 성산에서 나는 많은 향긋한 향품으로 그를 방부 처리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동굴 안의 동쪽, 유향이 있는 쪽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등잔대를 놓아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6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 서서 날이 샐 때까지 밤새도록 그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7 이에 셋과 큰 아들 에노스와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이 나가서 주님께 드릴 좋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아담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바쳤던 그 제단에 갔습니다.

8 하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의 종 아담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쉬게 하시도록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라”

9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였습니다.

10장

"아담은 첫 번째....였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의 조상 아담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2 그 후에 그들은 자기와 아버지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3 그들이 제사를 마치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에 장로인 셋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셋아 셋아 셋아 세 번 부르시며,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한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말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내 말씀을 보내어 너와 네 후손을 구원하리라.

4 “그러나 네 아비 아담이 네게 준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네 후손을 네 형제 가인에게서 끊으라 "

5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에게서 그의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6 셋과 하와와 그들의 자녀들이 산에서 보물의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7 그러나 아담은 에덴 땅 보물의 동굴에서 죽은 첫 번째 영혼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죽은 자가 없고 그의 아들 아벨은 살인으로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8 아담의 모든 자손이 일백사십 일 동안 일어나 그들의 아버지 아담을 위하여 울며 그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장

셋은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하고 정의로운 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후 셋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가인의 자녀들에게서 분리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이 내려가서 서쪽 곧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곳 아래에 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셋과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 아담에게 가까이 있기 위해 보물의 동굴 산 북쪽에 거했습니다.

3 장로 셋은 키가 크고 착하고 영혼이 순수하고 정신이 강하여 자기 백성의 우두머리에 섰고 죄로부터 순결함과 회개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들 중 한 사람도 가인의 자손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그들의 순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으니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동굴 곧 보물의 동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에게 시로 노래하였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셋은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의 어머니 하와의 시체 앞에 서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자신과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그에게 조언을 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6 그리고 셋과 그의 자녀들은 땅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늘의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시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항상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산 안에서부터, 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또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8 셋과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순결 때문에 그 천사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동산은 그들보다 훨씬 위에 있지 않고 단지 약 십오 영적 규빗에 불과했습니다.

9 이제 한 영적 규빗은 사람의 세 규빗, 합쳐서 마흔다섯 규빗에 해당이 됩니다.

10 셋과 그의 자녀들은 동산 아래 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을 위한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밀 조차도 안 심었으며; 그러나 제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산에서 나는 과일과 향이 좋은 나무를 먹었습니다.

11 셋은 매 사십일마다 자주 금식하였으며 그의 장자들도 금식하였습니다. 셋의 가족은 바람이 불어 올 때 동산의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12 그들은 행복하고 순결하며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없었고 그들 중에 시기와 악행과 미움이 없었습니다. 동물적인 욕정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입에서도 더러운 말이나 저주가 나오지 아니하고 사악한 조언도 사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한 적이 없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맹세해야 할 때에는 의인 아벨의 피로 맹세하였습니다.

13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과 여자들에게 날마다 동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담의 몸으로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것으로 그들 자신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였습니다.

14 셋의 끝이 가까울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12장

셋의 가족 문제. 그의 죽음. 에노스가 장로가 됨. 아담 가족의 버림받은 지파는 어떻게 지냈는가.

의인 셋이 그 아들 에노스와 에노스의 아들 가이난과 가이난의 아들 마할랄렐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2 "나의 종말이 가까왔으니 내가 제물을 드리는 제단 위에 지붕을 짓고자 하노라"

3 그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인을 막론하고 다 나가서 수고하여 제단 위에 아름다운 지붕을 지었습니다.

4 셋의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이 산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들을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지붕 건축을 마치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지런히 일하여 그들의 아버지 셋에게로 데려갔고, 셋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의 자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탄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6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사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셋에게 약속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아버지와 약속한 큰 닷새 반 후에 내가 내 말씀을 보내어

너와 네 자손을 구원하리라"

7 셋과 그의 자녀과 그의 자손이 함께 모여 제단에서 내려와 보물의 동굴에 이르러 거기서 기도하고 우리 조상 아담의 몸으로 축복하고 우리 조상 아담의 몸에 기름을 붓고 성별하였습니다.

8 그러나 셋은 보물의 동굴에 며칠을 머물렀다가 죽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9 그 때에 맏아들 에노스가 그 아들 가이난과 가이난의 아들 마할랄렐과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과 야렛의 아들 에녹이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와 함께 셋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에게로 왔습니다.

10 셋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의인 아벨의 피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간구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산에서 내려가지 말거라.

11 “살인한 자와 그의 형제를 죽인 죄인인 가인의 자손들과 교제하지 말라. 내 자녀들아 그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였으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그와 그의 모든 죄에서 피하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12 셋이 이 말을 한 후에 그의 맏아들 에노스를 축복하고 그의 평생에 우리 조상 아담의 몸 앞에서 습관적으로 정결하게 섬기고, 그 후에 또한 때때로 그가 셋이 쌓은 제단에 가라고 그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의와 공의와 순결함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라고 명하였습니다.

13 셋의 팔다리가 풀렸고 그의 손과 발은 모든 힘을 잃었으며 그의 입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을 포기하였고 그의 구백십이 년 다음 날 죽었습니다. 아빕월 이십칠 일이었으며 에녹은 당시 스무 살이었습니다.

14 그들은 셋의 시체를 정중히 싸매고 향긋한 향품으로 방부처리를 하고 보물의 동굴 곧 우리 조상 아담의 시체 우편에 두어 사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 제물을 드렸습니다.

15 셋이 죽은 후에 에노스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백성의 머리가 되어 의와 공의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16 그러나 에노스가 팔백이십 세가 되었을 때, 가인은 많은 후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정욕에 사로잡힌 채 자주 혼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땅이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13장

“가인의 자손들 중에는 도적질과 살인과 죄가 많이 있더라”

그 때에 가인의 자손 중 소경 라멕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툰이요 그들 두 사람은 소가 많았습니다.

2 그러나 라멕은 소들을 보내어 그들을 어린 목자로 돌보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아툰과 그의 어머니 하지나 앞에서 울며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그 소를 혼자 먹일 수 없나이다. 이는 사람이 내게서 그 소를 도적질하거나 소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도적질과 살인과 죄가 많았습니다.

3 라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맞도다. 그가 홀로 있으면 이 곳 사람들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

4 라멕이 일어나서 소경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지키던 활을 가지고 큰 화살과 매끄러운 돌과 물매를 가지고 어린 목자와 함께 들로 가서 그리고 소 뒤에 몸을 두었습니다. 어린 양치기가 소를 지켜보는 동안. 라멕도 여러 날 그러했습니다.

5 그 사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떨림과 공포로 그를 저주한 이후로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떠돌았습니다.

6 그가 방황하던 중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가서 그에 관하여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는 가축들과 함께 들판에 있습니다."

7 그 때에 가인은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가 들판에 이르자 젊은 목자는 그가 내는 소리와 소 떼가 그의 앞에서 함께 모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 이에 그가 라멕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는 야수입니까? 강도입니까?”

9 라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올라올 때에 그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에게 알게 하라”

10 라멕이 활을 굽혀 화살을 그 위에 얹고 물매에 돌을 꿰매었고, 가인이 들에서 나올 때에 목자가 라멕에게 이르되 “쏘라. 보라 그가 오고 있다”

11 라멕이 가인을 화살로 쏘아 가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물매 돌로 그를 쳐서 얼굴에 떨어지니 그의 두 눈이 상하였고, 가인은 즉시 넘어져 죽었습니다.

12 라멕과 어린 목자가 그에게로 나아와 그가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어린 목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죽인 것은 우리 할아버지 가인입니다!"

13 라멕이 그 일을 뉘우치고 후회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고 어린 목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쳤고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것이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들어 그를 쳐서 그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였습니다.

14장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또 다른 세대의 인간을 앗아갑니다.

에노스가 구백 살이 되었을 때 셋의 모든 자손들과 가이난의 모든 자손들과 그의 장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축복을 청하였습니다.

2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의인 아벨의 피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 자손 중 하나도 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가지 말며 살인자 가인의 자손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라"

3 에노스가 그 아들 가이난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보라 네 백성을 마음에 두어 의와 순전함으로 그들을 굳게 하고 네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 조상 아담의 몸 앞에 서서 섬기라"

4 이 후에 에노스는 구백팔십오 세에 안식을 얻었고 가이난이 그를 감아 보물의 동굴 안에 그의 조상 아담의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그를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15장

아담의 후손은 보물의 동굴을 가족의 성지로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노스가 죽은 후, 가이난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의와 순결함으로 그의 백성의 장로로 섰습니다. 그는 또한 보물의 동굴 안에서 아담의 몸 앞에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2 그가 구백십 년을 살았을 때에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안식하려 할 때에 모든 아버지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그에게 나아와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의인 아벨의 피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 가지말며 살인자 가인의 자손과 교제하지 말라"

3 그의 맏아들 마할랄렐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그를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4 마할랄렐이 그를 향긋한 향품으로 방부 처리하고 보물의 동굴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그를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16장

가족의 선한 지파는 여전히 가인의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그 때 마할랄렐은 자기 백성 위에 서서 의와 순결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가인의 자손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 그는 또한 보물의 동굴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조상 아담의 몸 앞에서 섬기며 자신과 그의 백성에 대하여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가 팔백칠십 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으며 그 때 병들었습니다.

3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구하려고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4 이에 마할랄렐이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 눈물이 얼굴에 흐르고 맏아들 야렛을 부르니 그가 왔습니다.

5 그가 그 얼굴에 입맞추며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야렛아, 내가 천지를 지으신 이 앞에서 말하노니 네 백성을 지켜 의와 순전함으로 양육하고 너희들 중 한 명도 이 신성한 산을 내려가 가인의 자손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라.

6 “내 아들아 들을지어다 후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멸망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하사 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7 “그러나 나는 또한 너의 자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이 산에서 내려가 가인의 자손들과 교제하여 그들과 함께 멸망할 줄을 아노라.

8 "오 내 아들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죄가 네게 붙지 않도록 하라"

9 마할랄렐이 또 그의 아들 야렛에게 이르되 “내가 죽을 때에 내 몸을 방부 처리하여 보물의 동

굴안 조상들의 시체 곁에 두고, 내 몸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백성들을 돌보며 네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 앞에서 네 직무를 완수하라"

10 마할랄렐이 그의 모든 자손을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자기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11 야렛은 자기 아버지 마할랄렐이 죽은 것을 보고 슬피 울며 그의 손과 발을 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2 그의 자녀들이 그를 정성껏 방부 처리하여 그의 조상들의 시체와 함께 그를 누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일어나서 사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17장

야렛은 엄격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는 많은 관능적인 광경을 보는 가인의 땅으로 유인됩니다. 야렛은 깨끗한 마음으로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렛은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의 백성 위에 사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와 순결함으로 그들을 먹였으며, 그의 권고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인의 자손에게로 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반복하여 명령하였으니 그의 생애 사백팔십오 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였습니다.

3 이 말년에 이 표적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야렛이 그의 조상의 시체 앞에 사자처럼 서서 기도하고 그의 백성에게 경고할 때에 야렛이 그의 권고 없이는 그의 자녀들이 아무 일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시기하고 아름다운 발현을 나타냈습니다.

4 그 때에 사탄이 그의 군대 삼십 명과 함께 그에게 나타나서 잘 생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사탄 자신은 그들 중에서 장로이요 키가 가장 크며 좋은 수염을 가졌습니다.

5 그들이 동굴 어귀에 서서 동굴 밖으로 야렛을 불렀습니다.

6 그들에게 나오시니 그들이 보기에 선한 사람 같으며 빛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외모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7 또 그 마음에 이르시되 “가인의 자손이 이 산에 오를 수 없고 그들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고 또 이 사람들 중에 내 족속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낯선 사람임에 틀림없다"

8 야렛이 그들과 문안하고 그들 가운데 장로에게 이르되 “오 그대여, 당신에게 있는 기이한 일을 내게 설명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소서. 저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같습니다"

9 그러자 장로가 울기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가 야렛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아담이라. 이 사람은 내 아들 아벨이니 그는 그의 형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자요. 가인의 마음 안에서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느니라.

10 “이는 내가 주님께 구한, 아벨을 대신하여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내 아들 셋이라.

11 "이는 내 아들 셋의 손자 에노스요. 저 하나는 에노스의 손자 가이난이요. 또 하나는 네 아버지 가이난의 아들 마할랄렐이니라"

12 그러나 야렛은 그들의 모습과 장로가 자기에게 한 말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13 장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에 창조하신 동산 북쪽 땅에 거하였노라. 그분은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산 안에 두셨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동산 아래라.

14 “그러나 내가 범죄한 후에 그가 나를 그 곳에서 나오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 동굴에 거하게 하셨고 크고 심한 환난이 내게 임하였더니 내가 죽음이 가까우매 내가 내 아들 셋에게 명령하여 그의 백성을 잘 돌보게 하였노라. 이 나의 명령이 오는 세대 끝까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니라.

15 “그러나 내 아들 야렛아, 우리는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고 너는 여기에서 곤고한 생활을 하고 있거니와 이 네 아버지 마할랄렐이 내게 말하되 큰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였도다.

16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안위를 걱정하여 일어나 내 자녀들을 데리고 너와 네 자녀를 방문하러 여기 왔노라. 그러나 내가 보니 네가 이 동굴 안에 서서 울며 네 자녀들이 더위와 고통으로 산 주변에 흩어져 있구나.

17 “그러나 내 아들아 우리가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오다가 이 산 아래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 그들은 아름다운 땅에 거하며 나무와 실과와 온갖 신록이 무성하며 동산과 같으니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너희인 줄 알았으나 너희 아버지 마할랄렐이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아니라고 했노라.

18 "그러므로 내 아들아, 이제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너와 너 자녀들로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네가 있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쉬리라.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로 내려가지 아니하려면 일어나 네 자녀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동산으로 가자. 너희는 우리 아름다운 땅에서 살 것이며 지금 너와 네 자녀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쉬리라"

19 그러나 야렛은 장로에게서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리저리 다녔지만 그 순간에 그는 그의 자녀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20 이에 그 장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숨었나이까?"

21 장로가 대답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알지 못하였으리라"

22 그 때 야렛은 그의 말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3 그 장로가 야렛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돌이켜 이같이 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말하되 " 내가 당신과 함께 가는 것과 당신이 나에게 말한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내 자녀 중 하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24 장로가 야렛의 뜻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지금은 그 뜻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나라를 보리라. 만일 우리가 사는 땅이 너를 기쁘게 하면 우리가 너와 이리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을 데려갈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너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 자신의 장소로 돌아갈 것이라"

25 그리고 장로는 야렛을 재촉하여 그의 자녀 중 하나가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조언하러 오기 전에 가자고 권하였습니다.

26 야렛이 굴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에 갔습니다. 그들이 가인의 아들들의 산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27 장로가 동무 중 하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굴 어귀에서 잊은 것이 있나니 이는 우리가 야렛에게 입히려고 가져온 택한 옷이니라.

28 장로가 그들 중 하나에게 이르되 "누군가 한 사람은 돌아가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야렛을 입히리니 그는 우리와 같이 선하고 잘 생길 것이며

우리와 함께 우리 나라에 가기에 어울릴 것이라"

29 그러자 한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30 그러나 그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장로가 그를 불러 말하되 "내가 올라가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31 그가 가만히 서 있더니 장로가 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굴에서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은 이것이니 동굴 안과 그 안에 있는 시체 위에 타는 등불을 끄는 것이니라. 서두르고 우리에게 돌아오너라"

32 그 사람은 가고 장로는 자기 동료들과 야렛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고 야렛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인 자손의 집 근처에 있는 샘물 곁에 머물면서 동료가 야렛을 위해 옷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3 그런 다음 동굴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등불을 끄고 그들에게 환상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과 은혜에 대해 이상히 여겼고,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마음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34 그러나 그들이 거기 유숙할 때에 그들 중 셋이 가인의 자손의 집에 들어가 이르되 “오늘 우리에게 샘가로 양식을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일행이 먹게 하라”

35 가인의 아들들이 그들을 보고 기이히 여겨 생각하되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이로다”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샘물에 이르러 그들의 동료들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36 그들이 너무 잘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존재들을 보도록 그들의 장소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남자와 여자들은 다 그들 주위에 모였습니다.

37 장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가 너희와 너희 여자들도 마시게 하여 너희와 함께 쉼을 얻게 해주시오”

38 그 사람들이 장로의 이 말을 듣고 가인의 아들들이 각기 아내를 데려왔고 다른 이들은 딸을 데려왔으므로 많은 여자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나 아내를 위해 야렛에게 말을 겁니다. 모두 비슷합니다.

39 그러나 야렛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영혼이 그들에게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음식이나 음료를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40 그 장로는 그가 그들에게서 몸을 움츠리는 암시를 보고 그에게 이르되 “슬퍼하지 말라. 나는 큰 장로니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41 이에 그가 손을 펴서 한 여인을 취하매 그의 동무 다섯이 야렛 앞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도 그들과 같이 하게 하였습니다.

42 야렛은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울며 심중에 이르기를- 내 조상들은 결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3 이에 그는 두 손을 펴고 간절한 마음과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44 야렛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장로가 그의 동무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45 야렛이 돌아섰으나 그들을 보지 못하고 가인 자손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46 그가 울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내 조상들이 내게 경고한 이 족속과 함께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나는 내게 나타난 자들을 내 조상인 줄로 생각하였나이다. 나는 그를 믿었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한 자가 악마인 줄 이제 알았나이다.

47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구하오니 당신이 저 악마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족속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저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소서. 나는 저들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나 자신에게 없습니다"

48 야렛이 기도를 마치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니 그가 야렛을 데려다가 산 위에 세우고 길을 보여 주고 조언을 준 다음에 떠났습니다.

18장

보물 동굴의 혼란. 죽은 아담의 기적적인 연설.

야렛의 자녀들은 시간마다 그를 방문하여 그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 그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를 위해 그것을 해주었습

니다.

2 그러나 이번에 그들이 동굴에 들어갈 때에 야렛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등불이 꺼진 것과 조상들의 시체가 던지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 아들 가인을 죽인 것 같이 우리 아들을 속여 죽이려 하였느니라"

3 그들이 또 이르되 “천지의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거대한 가짜 발현을 일으킨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였습니다.

4 야렛 자손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서서 그들의 아버지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닥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6 그 때에 야렛이 비통한 얼굴로 몸도 마음도 비참한 채 왔습니다. 그 열조의 몸을 떠난 것에 대하여 비탄에 잠겼습니다.

7 그러나 그가 동굴에 가까이 올 때에 그의 자녀들이 그를 보고 급히 동굴로 가서 그의 목을 안고 부르짖어 이르되 “오 아버지여 어디 계셨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던 분이 어찌하여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그리고 다시, "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사라지셨을 때에 우리 조상들의 시체 위에 있는 등이 꺼지고 시체들이 던져졌으며 거기서 소리가 나나이다"

8 야렛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시체들이 흩어져 있고 등불이 꺼진 것과 조상 아버지들이 사탄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 이에 야렛이 시체 위에 엎드려 그들을 안고 이르되 “내 조상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로 나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였나이다. 내가 구하옵기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 주시고 내 죽음의 날까지 그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10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렛에게 말한 음성 외에는 모든 음성이 그쳤으니 곧 사람이 그 동료에게 말하듯이 말하되 “내 아들 야렛아. 너를 구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너희가 그 제물을 가져다가 내가 드린 제단 위에 드릴지어다. 그 때 또한 너희는 사탄을 삼가라. 사탄이 나를 멸하려 여러 번 나타나 나를 속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11 "너의 백성에게 명하여 그를 경계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를 쉬지 말게 하라"

12 그러자 아담의 목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야렛과 그의 자녀들은 이것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체를 처음 그대로 두었습니다. 야렛과 그의 자녀들은 동이 트기까지 그날 밤 내내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13 야렛이 아담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제물을 만들어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그는 등불이 꺼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비와 그의 죄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14 하나님이 제단 위에서 야렛에게 나타나사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야렛에게 제단에서 신성한 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등불을 켜고 아담의 몸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19장

야렛의 자녀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5500년을 설명하고 이 땅에 임할 그분의 오심을 그에게 계시했습니다.

2 하나님이 야렛에게 이르시되 "네가 등불을 밝히려고 제단에서 취한 그 불은 네게 있게 하여 조상의 몸을 비추게 하고 아담의 육체가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그 불도 동굴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3 "그러나 오 야렛아, 불을 조심해서 다루어 등불 속에서 밝게 타오르도록 하고, 네가 볼 때 사탄의 발현이 아니라 비젼을 통해 명령을 받을 때까지 너는 동굴에서 다시 나가지 말거라.

4 "그런즉 너의 백성에게 다시 명하여 가인의 자손과 교제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라 하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니 미움과 불의의 행실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니라"

5 하나님이 야렛에게 그 밖에도 많은 계명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그분의 말씀이 떠나셨습니다.

6 야렛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서 불을 취하고 동굴에 내려가 아담의 몸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7 이 표적은 사백오십 세 말에 야렛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많은 불가사의가 많지만 우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결히 쓰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서사를 길게 하지 않기 위해 이것만 기록하였습니다.

8 그리고 야렛은 팔십 년 동안 그의 자녀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범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권고 없이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산에서 차례로 내려가며 가인의 자손들과 섞이며 더러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9 이제 야렛의 자손이 성산을 내려간 이유는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20장

매혹적인 음악; 가인의 아들들 사이에 독주가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셋의 자녀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조언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산에서 불의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가인이 흑암의 땅으로 내려간 후에 그 땅에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게눈이며 가인을 죽인 소경 라멕의 아들입니다.

2 그러나 이 게눈은 어렸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나팔과 뿔나팔과 현악기와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하프와 피리를 만들었다. 그는 항상 그리고 매시간 그것들을 연주했습니다.

3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놀 때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 중에서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4 그런 다음 그는 그것들을 연주할 여러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주할 때 가인의 자녀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가인의 자녀들은 그들 가운데 죄로 스스로를 불태우고 불같이 타게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서로 불을 붙이매 그들 사이에 정욕 더하였습니다.

5 사탄은 또한 게눈에게 곡식에서 독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게눈은 술집에서 여러 무리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과일과 꽃을 그들의 손에 가져와서 그들은 그것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6 이 게눈은 이와 같이 죄를 심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교만하게 행동했으며 가인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가장 더러운 사악함을 범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7 이에 사탄이 그들이 게눈에게 항복하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게눈의 이해력을 높여 철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8 그들이 취했을 때 그들 사이에 미움과 살인이 더하게 했으며,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에게 아이들을 빼앗고 자기 앞에서 더럽히는 악을 가르쳤습니다.

9 그리고 사람들이 지는 것을 보고, 제압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매맞은 자들이 게눈에게 와서 그와 함께 피신했고, 그는 그들을 그의 동맹자로 만들었습니다.

10 그 때에 죄가 그들 가운데 크게 더하여 남자가 자신의 누이, 딸, 또는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의 아버지의 누이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관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행하며 땅이 죄로 더러워졌고 저희를 창조하신 심판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11 그러나 게눈은 여러 무리들을 함께 모아서 성산 기슭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한 뿔나팔과 다른 모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성산에 있는 셋의 자손이 듣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12 셋 자손이 그 소리를 듣고 기이히 여겨 무리 지어 와서 아래를 보기 위하여 산꼭대기에 섰으며 그리고 그들은 일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13 그 해 말에 게눈이 그들이 자기에게 조금씩 지는 것을 보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여러 가지 패턴의 옷들에 대한 염색약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또 진홍색과 보라색과 다른 것을 염색하는 법을 알게 하였습니다.

14 가인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으로 빛났으며 성산 산기슭에 모여서 뿔나팔과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경주하며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15 그 동안에 성산에 있는 셋 자손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이라 부르셨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16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들은 금식과 기도와 그들의 아버지 야렛의 조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인의 자손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름다운 의복과 장신구를 보았습니다.

17 가인 자손이 아래에서 올려다 보니 셋 자손이 무리를 이루어 산꼭대기에 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오라고 불렀습니다.

18 셋 자손이 위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 때에 라멕의 아들 게

눈은 그들이 길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들을 내려오게 할까를 생각하였습니다.

19 밤에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들이 사는 산에서 내려올 길이 없다 하고 내일 그들이 이르거든 이르기를, 너희는 서쪽으로 오라 하라 산기슭 곧 두 작은 산 사이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길이 보이리니 그 길로 우리에게로 내려오라 하라”

20 날이 새매 게눈이 늘 하듯이 산 아래서 뿔나팔을 불며 북을 쳤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그것을 듣고 전처럼 왔습니다.

21 게눈이 아래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산 서쪽으로 가라 거기서 내려오는 길을 찾으리라”

22 셋 자손이 그에게서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들은 모든 것을 야렛에게 알리려고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23 야렛이 그것을 듣고 비통하였는데, 그들이 그의 권고를 어길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4 그 후에 셋 자손 백 명이 모여 서로 말하되 “자 가인 자손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과 함께 즐기자”

25 그러나 야렛은 그 백 명에게 이 말을 듣고 그의 영혼이 동하고 그의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이에 큰 열심으로 일어나 그들 가운데 서서 의인 아벨의 피로 그들에게 엄명하여 이르되 “너희 중 한 사람도 우리 조상들이 거주하라고 명한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산에서 내려가지 말라"

26 야렛이 그들이 그의 말을 받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착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녀들아. 너희가 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가면 하나님이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줄을 알라"

27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조상 아담의 죽음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가이난과 마할랄렐의 피로 명하노니 내 말을 듣고 이 거룩한 산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순간 너희는 생명과 긍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8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9 그 때에 에녹이 이미 장성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일어나서 이르되 “들으라, 너희 셋의 자손들아. 무론 대소하고 너희가 우리 조상들의 명령을 범하고 이 거룩한 산을 내려가면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이 곳에 오르지 못하리라"

30 그러나 그들이 에녹에 대항하여 일어나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산에서 내려갔습니다.

31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색으로 물들인 손과 발과 얼굴에 장신구로 문신을 새긴 것을 보고 죄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32 사탄이 가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 같이 가인의 딸들도 셋의 아들들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딸들은 굶주린 짐승 같은 셋의 아들들에 강한 욕정을 느꼈습니다.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을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33 그러나 그들이 이같이 더러움에 빠진 후에 왔던 길로 돌아가서 성산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거룩한 산의 돌들이 그들 앞에서 번쩍이는 불과 같이 되었기에 그들은 다시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34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회개하게 하심은 그들이 영광에서 내려와 자기의 순수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의 더러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5 그 때에 하나님이 야렛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르시되 “네가 '내 자녀'라 칭하던 이 네 자녀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멸망과 죄의 거처로 내려갔도다. 남아 있는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고 길을 잃지 않게 하라"

36 야렛은 주님 앞에서 울며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녀들이 성산에서 내려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차라리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37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 성산에서 내려가지 말며 가인의 자손과 교제하지 말라고 설교하였습니다.

38 그러나 그들은 그의 메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1장

야렛은 어긋난 길을 간 아들들을 위해 슬퍼하며 죽습니다. 홍수에 대한 예언.

그 후에 다른 무리가 모여서 형제들을 돌보러 갔더니 그러나 그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무리만 남을 때까지 여러 무리가 그렇게 행하고 멸망했습니다.

2 야렛이 근심으로 병이 들었고 그 병은 죽음의 날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 그때 그는 그 장자 에녹,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 므두셀라의 아들 라멕, 라멕의 아들 노아를 불렀습니다.

4 그들이 그에게 이르매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이르되 “너희는 의로우며 순전한 아들들이니 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가지 말라. 보라 너희 자녀와 자손들이 이 성산에서 내려가 그들 자신을 가증한 정욕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성산으로부터 벗어났도다.

5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노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산에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이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받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

6 “그러나 내 아들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낯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가 다시는 이 동산과 이 거룩한 산을 눈으로 보기 위해 돌아오지 못하리라.

7 “그런즉 내 아들들아.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이 거룩한 산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갈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의 몸을 취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과 제물, 곧 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조상 아담의 시체가 있을 곳에 두거라.

8 “내 아들들아 너희 중에서 남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리라.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땅의 한가운데에 두어야 하리라"

9 노아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남으리이까?”

10 야렛이 대답하여 이르되 “남을 자가 너니라. 홍수가 날 때에 우리 조상 아담의 시체를 동굴에서 가져다가 너와 함께 방주 안에 놓아야 하리라”

11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셈이 곧 우리 조상 아담의 몸을 땅 한가운데 곧 구원이 임할 곳에 두리라"

12 야렛이 그 아들 에녹에게로 돌이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이 동굴에 머물며 네 평생에 우리 조상 아담의 몸 앞에서 부지런히 섬기며 의와 순결로 네 백성을 먹이라"

13 야렛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풀렸고 그의 눈이 감겼으며 그는 그의 조상들처럼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노아의 삼백육십 년과 그의 생애의 구백팔십구 년에 일어났습니다. Takhsas의 12일, 금요일.

14 그러나 야렛이 죽을 때에 그의 시대에 쓰러진 셋의 자손을 위하여 그의 큰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 에녹과 므두셀라와 라멕과 노아 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를 조심스럽게 방부 처리한 다음 보물의 동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를 위하여 사십 일 동안 애통하였습니다.

16 이 애곡하는 날이 그칠 때에 에녹과 므두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마음에 슬픔이 남았으니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2장

세상에 남은 의인은 단 세 명뿐이다. 홍수 이전의 인간의 악한 상태.

그러나 에녹은 그의 아버지 야렛의 명령을 지켰고 동굴에서 계속 섬겼습니다.

2 많은 기사가 일어난 이 에녹은 유명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은 이곳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3 그 후에 셋 자손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그릇 행하여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4 에녹이 삼백팔십오 년 동안 주님 앞에서 그의 직무를 계속하더니 그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땅에서 옮기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5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홍수의 물을 땅에 내리시고 우리의 피조물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아노라.

6 “너희는 이 산에서 이 백성의 마지막 치리자라. 내가 아노니 이 거룩한 산에서 너희에게 자녀를 낳게 할 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중에 자기 백성의 자손을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산에 어떤 큰 무리도 너에게 남지 않을 것이다"

7 에녹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영혼을 삼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를 섬김으로 굳게 잡고 강직한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의와 순결함과 공의와 회개함과 또한 순수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8 에녹이 그들에게 명령을 마치매 하나님이 그를 그 산에서 생명의 땅, 의인과 택함받은 자의 처소, 기쁨의 낙원의 거처, 하늘에 닿는 빛 안에서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 밖에 있는 빛; 왜냐하면 그 것은 하나님의 빛인데 온 세상을 채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곳도 담을 수 없습니다.

9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10 우리 조상이나 그 자손들 중 누구도 므두셀라와 라멕과 노아 세 사람 외에는 다 그 거룩한 산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가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산에 금하여졌고 그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산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2권끝-